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24

12

유럽 박물관 기행
이탈리아 통인 역사를 담고 있는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오페라 '카르멘' - 올림대첩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컬러스'



포르테 디 콰트로



왕의 남자



[爾]

작_김태웅
예술감독/연출_곽종필

2018.
12. 13(목)~15(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 부산시립극단 | 문의 | 051)607-3125
입장권 | R석 2만원, S석 1만원 | 예매 | <http://bscc.or.kr>

중학생 이상 관람가

특별출연 | 고인범 김익현 박호진 심상교
출연 | 염지선 황창기 이혁우 김은희 배기철 이현주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이동현 최종문 강범수 최은선 최하나 최재우 서준수 이종호 김종규
스텝 | 예술감독·연출/곽종필 작/김태웅 드라마트루기/이정허 작곡/박침홍 무대디자인/김유리라
안무/김은주 아크로바틱 감독/김태훈 의상디자인/곽세영 분장/이지원 움직임 연출/김세진
무대제작/김재한 기획/조승환 홍보/박지현 조연출/정마린 무대진행/장시연 무대감독/정순지



P A N G E L A C E

‘추억! 열정! 최고의 감동!’
엔젤피스 예술단
송년평화콘서트



2018. 12. 29(토)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 엔젤피스 예술단 051-557-1088

전석무료

(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당일 오후6시부터 선착순 좌석권 배부)

인터넷 신청

엔젤피스예술단 홈페이지
관람연령 만 5세이상

2018송년콘서트

밴드

추가역로 콘서트

2018.12.14(금) 20: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엠컬처

티켓 지정좌석 1층VIP석 40,000원, R석 30,000원 / 2층 S석 20,000원, A석 10,000원

티켓예매 인터파크 YES24.COM 전화 예매 및 문의 051-749-7651 관람연령 만 7세이상

할인정보 누림회원 초·중·고·단체 30%이상(30%), 장애인(50%)

누림회원카드, 학생증, 장애인카드 확인 후 매표소에서 티켓 발부



해운대문화회관

2018

송년음악회

Happy New Year

2018.12.27(목)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주관 해운대문화회관

티켓 지정좌석 1층VIP석 30,000원, R석 20,000원 / 2층 A석 10,000원

티켓예매 인터파크 YES24.COM 전화 예매 및 문의 051-749-7651

관람연령 만 7세이상 할인정보 누림회원 초·중·고·단체 20%이상, 장애인 50%

누림회원카드, 학생증, 장애인카드 확인 후 매표소에서 티켓 발부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Ⅲ

말러, 교향곡의 새 시대를 열다

Program

Borodin Prince Igor, Polovtsian Dances

Mahler Symphony No. 5 in C# minor



예술감독 | 김원명



지휘자 | 백진현



구스타프 말러 (1860-1911)



부산로일팔하모니오케스트라 (BRPO) | 대표 김일택

2018. 12.13(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한국문화예술계연합회, 부산로일팔하모니오케스트라(BRPO)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예매 INTERPARK 티켓 1544-1555, 입장권 1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공연문의 051) 220-5812
기획 | 이성섭,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서종철, [을숙도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산MBC와 함께하는 2018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Program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합창」
L.v.Beethoven | Symphony No.9 in D minor "Choral", Op.125

지휘 임헌정
소프라노 양제경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조중혁
바리톤 허종훈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2018. 12. 21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정필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소리 김점순



소리 김보연



소리 이소정



정가 김병오



정가 강권순



가야금 병창 유채진



징·소리 김용호



소리 박천음



소리 박영순

관현악 [세줄 (여민락을 위한 Bolero)]
우리비나라
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한]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룡도]
남해안 별신굿 구음과 국악관현악 [가망굿 (수부시나위)]
함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
국악관현악을 위한 장구협주곡 [아홉 (A-HOPE)]



설장구 장재호



색소폰 전성현

송년 음악회

구름에 달가듯이 &
한국의 소리와 두드림

2018. 12. 27(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1층 10,000원 2층 5,000원

| 주 관 | 부산시립예술단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3124

Contents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가의 초대

2018년 12월호 통권 324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11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10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컬러스(COLORS)'
- 12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12월 공연캘린더
- 16 BACKSTAGE OPERA**
오페라 '카르멘'- 울릉대첩
- 18 MUSEUM OF EUROPE**
이탈리아 통일 역사를 담고 있는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Pinacoteca di Brera)
- 22 TRAVEL WITH YOU**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청
- 30 PREVIEW**



40 ISSU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42 REVIEW

44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60 NEW BOOK

새로 나온 책

61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67 INTERVIEW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이달의 PICK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가면서 어느덧 한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몸과 마음이 바빠지는 12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여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공연장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계획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컬러스(COLORS)'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 23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완벽한 화음과 강렬한 울림으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크로스오버 보컬그룹으로 사랑받고 있는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컬러스(COLOR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6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73회 정기연주회
2018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며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2018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제야음악회
12월 31일 일요일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9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만의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 '2018년 제야음악회'.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컬러스(COLORS)

2018년 저물어가는 한해의 아쉬움을
‘천상의 하모니’로 날려줄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컬러스(COLORS)’가 12월 22일과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한국 크로스오버의 최정상

성악, 뮤지컬, K팝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JTBC ‘팬텀싱어’의 초
대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Forte di
Quattro)는 뮤지컬과 성악을 넘나드는 리
더 고훈정, 파워풀한 명품 테너 김현수, 여
심을 사로잡는 음색의 베이스 손태진, 독
학과 감성 테너 이버리로 구성되어 있다.
‘4중창의 힘’이라는 팀명처럼 완벽한 화음
과 강렬한 울림으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
의 크로스오버 보컬그룹으로 사랑받고 있
으며, 특히 뛰어난 라이브 실력으로 공연
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국내 공연계의 블
루칩으로 떠올랐다. ‘팬텀싱어’ 우승 후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데카(DECCA
Records)를 통해 발매된 데뷔 음반 ‘포르
테 디 콰트로’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
악 장르에서는 드물게 플래티넘(3만장 돌
파)을 기록하며 국내를 넘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 호주, 독일 등
크로스오버 강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

Forte di Quattro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 23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다. 같은 해 발표한 2집 앨범 '클라시카' 역시 2017년 최고의 음반으로 손꼽히며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이 앨범은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크로스오버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4인 4색이 빛어내는 '4중창의 힘'

경희대학교 성악과 출신의 뮤지컬 배우 고훈정은 '팬텀싱어' 출연 당시 노래실력과 더불어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주목받았으며, 2중창부터 4중창까지 파트너를 가리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음색으로 유명하다. '팬텀싱어' 출연 당시 'CD를 씹어삼킨 테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김현수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으로, 아름다운 미성과 탁월한 곡 해석, 재치 있는 무대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 재학하며 유엔젤보이스 그룹 활동을 병행하던 중 '팬텀싱어'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한 손태진은 특히 진한 중저음이 매력적인 베이스로, 한국 대중음악계에 클래식적인 저음의 매력을 알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연극배우 출신인 이버리는 2014년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콩쿠르 뮤지컬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청중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셀프 프로듀싱 미니앨범 '컬러스(COLORS)'

포르테 디 콰르토는 크로스오버 보컬그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요, 영화음악,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 9월 발매된 2.5집 미니앨범 '컬러스(COLORS)'는 포르테 디 콰르토 멤버 개

개인이 프로듀싱한 신곡 6곡이 담겨 있다. 특히 멤버들이 직접 작곡, 작사한 곡들도 이번 미니앨범에 포함되어 있어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 이들이 가진 프로듀싱 능력과 크로스오버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감각적인 목소리와 함께하는

2018 연말 콘서트

송년을 맞아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미니앨범 '컬러스(COLORS)'의 6개 곡을 중심으로 포르테 디 콰르토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즐길 수 있다. 멤버들의 프로듀싱 능력이 돋보이는 'Overture', 'Ariel' 등의 곡들과 듣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애절하고 서정적인 곡 'Wish' 등을 통해 포르테 디 콰르토의 파스한 음색과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12

2018 DECEMBER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사랑채극장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밤'
10월 16일(화)-12월 23일(일) 오전 11:00
※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시실

부산국제미술대전
12월 4일(화)~12월 6일(목)
최학보 781-2391

제21회 대한서화예술대전
12월 12일(수)~12월 17일(월)
(사)대한서화예술협회 342-9971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2월 24일(월)~2019년 3월 3일(일)
아동 2만3천원, 성인 1만7천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주)PMC네트웍스 1599-7372

2

2018 부산오페라WEEK_뉴아시아오페라단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9:30
대 20만원-15만원-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뉴아시아오페라단(1600-6867)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7:00
중 무료/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010-2831-2836)

행복 나눔 피아노 콘서트 17:00
첼 전석 1만원/(주)아크웨이브라이프(010-4590-5745)

3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설명회 14:00
대 박주영 (010-2880-7880)

장정윤과 무용수들 19:30
중 초대/장정윤(200-7822)

4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몸의 수다'
11:00
대 전석 2천원(단체우선)/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그랜드오페라단 창관 22주년 기념
'마술피리 in Concert' 19:30
중 8만원-5만원-3만원-2만원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라클라스 콘서트 '로만티카' 18:00
대 12만1천원-9만9천원-7만7천원-5만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주)WSM(1566-5499)

10

11

김은주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첼 전석 1만원/김은주(010-7330-0377)

1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14:00
대 9만9천원-8만8천원-7만7천원-6만6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플루트앙상블 제26회 정기연주회 17:00
중 2만원-1만원
부산플루트앙상블(010-3582-5189)

17

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19:30
첼 초대/김해옥(010-3859-9822)

18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9회 정기연주회
'Adieu 2018 Rhapsody&Dance' 19:30
대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

2018 제3회 사랑나눔음악회 '눈부신 하루' 19:00
중 부산어깨동무나눔봉사단(010-3513-7156)

2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Colors' 17:00
대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18 송승환의 오리지널 난타-부산공연 14:00, 18:00
중 6만원-4만원/(주)피엠씨프러덕션(1577-7627)

2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러시안 클래식
발레단 내한공연 '호두까기인형' 19:30
대 5만원-3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18 송승환의 오리지널 난타-부산공연 19:30
중 6만원-4만원/(주)피엠씨프러덕션(1577-7627)

25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3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Concert' 18:00
대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

30

아지무스 오페라단 송년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중 5만원-3만원-2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3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제야음악회' 22: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8:00
중 무료/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010-6440-6078)

2018 송승환의 오리지널 난타-부산공연 14:00
중 6만원-4만원/(주)피엠씨프러덕션(1577-7627)



WED THU FRI SAT

WED	THU	FRI	SAT
<p>5</p> <p>부산시립무용단 사랑나눔 특별공연 '몸의 수다' 10:30 대 초대/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T-Band 블루의 정정렬제 춘향가 19:00 중 T-Band 블루(010-4591-0214)</p>	<p>6</p> <p>2018 송년음악회 'DREAM CONCERT'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p> <p>부산진구남성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무료 부산진구남성합창단(010-5129-4321)</p> <p>이기묘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첼 초대/이기묘(010-7551-9339)</p>	<p>7</p> <p>2018 부산솔리스트양상블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 부산일보사(461-4437)</p> <p>제5회 예그리나합창단 정기공연 19:30 중 무료/예그리나합창단(010-9832-7477)</p>	<p>1</p> <p>2018 부산오페라WEEK_뉴아시아오페라단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9:30 대 20만원·15만원·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뉴아시아오페라단(1600-6867)</p> <p>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제5회 정기연주회 17:00 중 무료/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010-3590-2434)</p> <p>트리오 하나리 창단연주회 19:30 첼 전석 1만원 트리오 하나리(010-5646-2153)</p>
<p>12</p>	<p>13</p> <p>부산시립극단 제63회 정기공연 '이(爾)-왕의 남자' 19:30 중 2만원·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김희정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첼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1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신희무관학교' 20:00 대 9만9천원·8만8천원·7만7천원·6만6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극단 제63회 정기공연 '이(爾)-왕의 남자' 19:30 중 2만원·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1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신희무관학교' 14:00, 19:00 대 9만9천원·8만8천원·7만7천원·6만6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극단 제63회 정기공연 '이(爾)-왕의 남자' 17:00 중 2만원·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19</p>	<p>20</p> <p>오페라단 나눔 창단연주회 '오페라 콘서트' 19:30 대 15만원·8만원·5만원·3만원·2만원 오페라단 나눔(611-0132)</p> <p>2018 송승환의 오리지널 난타-부산공연 19:30 중 6만원·4만원/(주)피엠씨프러덕션(1577-7627)</p>	<p>21</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6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73회 정기연주회 '2018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2018 송승환의 오리지널 난타-부산공연 19:30 중 6만원·4만원/(주)피엠씨프러덕션(1577-7627)</p> <p>차미령 피아노 독주회 19:30 첼 전석 1만원/차미령(010-5729-9949)</p>	<p>2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Colors' 19:00 대 12만1천원·9만9천원·7만7천원·5만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18 송승환의 오리지널 난타-부산공연 15:00, 19:00 중 6만원·4만원/(주)피엠씨프러덕션(1577-7627)</p> <p>플루트양상블 '비엔토' 창단연주회 15:00 첼 초대/플루트양상블 비엔토(010-4065-3451)</p>
<p>26</p> <p>제3회 장애인식개선 Story telling 자선음악회 '꿈을 그리는 우리들의 이야기' 19:00 중 전석 5천원/길따라좋은인연(744-4780)</p>	<p>27</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구름에 달가듯이 & 한국의 소리와 두드림' 19:30 중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28</p> <p>러시아의 겨울 피아노 연주회 19:30 중 피아니시모음악연구회(010-9238-2411)</p>	<p>29</p> <p>엔젤피스 예술단 송년평화콘서트 19:00 대 무료(인터넷 신청) 엔젤피스예술단(557-1088)</p> <p>창작오페라 '백산 안희제' 19:30 중 5만원·3만원·2만원 아지무소오페라단(010-8520-4649)</p>

12

2018 DECEMBER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전시실</p> <p>돌이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이야기 '형형색색 추상전' 11월 30일(금)-12월 2일(일) 1, 2층 전시실 이강군 010-8242-3300</p> <p>부산대학교 서양화 제34회 졸업전시회 12월 4일(화)-12월 9일(일) 1, 2층 전시실 윤신혜 010-2914-7066</p>	<p>박주철 작가 사진전 12월 12일(수)-12월 16일(일) 1, 2층 전시실 박주철 010-8336-4356</p> <p>진(眞) 선(善) 인(忍) 국제미술전 12월 17일(월)-12월 23일(일) 권홍대 010-6890-6040</p> <p>제35회 부산광역시 수석연합회 회원전 12월 29일(토)-12월 30일(일) 1, 2층 전시실 이해성 010-3579-1131</p>	
<p>2</p> <p>2018 The 최현우 'ASK ? & answer !' -부산 13:00, 17:00 대 7만7천원·6만6천원 (주)오름기획 1599-9354</p> <p>2018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소 전석 3만5천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p>	<p>3</p>	<p>4</p>
<p>9</p> <p>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16:00 소 전석 3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10</p>	<p>11</p> <p>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발레단 내한공연 '호두까기 인형' 19:30 대 11만원·9만9천원·7만7천원·4만4천원·2만2천원 예술기획(010-4909-7444)</p> <p>슬로스합창단 송년음악회 19:00 소 초대 부산연계고용표준사업장협의회(1877-1212)</p>
<p>16</p> <p>어린이뮤지컬 '공룡카드 어드벤처 월드' 11:00, 14:00 대 5만5천원·4만5천원 동그라미그리기(1577-5868)</p> <p>남산놀이마당 기획공연 '영남의 소리와 몸짓 -파방굿' 16:00, 19:00 소 무료/(사)남산놀이마당(516-4434)</p>	<p>17</p>	<p>18</p> <p>조선시대 전통의상 패션쇼 17:00 대 무료/(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501-4471)</p>
<p>23</p> <p>코믹 락 뮤지컬 '프리즌' 14:00, 17:00 소 전석 5만원/이끌림부산(1644-5764)</p>	<p>24</p> <p>코믹 락 뮤지컬 '프리즌' 17:00, 20:00 소 전석 5만원/이끌림부산(1644-5764)</p>	<p>25</p> <p>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미운오리너는 특별해!' 11:00, 14:00, 16:30 대 전석 5만5천원/극단 다음(1577-4868)</p>
<p>30</p>	<p>31</p> <p>코믹 락 뮤지컬 '프리즌' 14:00, 17:00 소 전석 5만원/이끌림부산(1644-5764)</p>	

WED

THU

FRI

SAT

1

2018 The 최현우 'ASK ? & answer !'
-부산 15:00, 19:00
대 7만7천원·6만6천원
(주)오름기획 (1599-9354)

2018 어린이 울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16:00
소 전석 3만5천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5

소년소녀 장학기금마련 '이진관, 최영철 콘서트'
18:00
대 전석 5만원
블루스카이어벤트(010-8442-3198)

6

2018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14:00
대 무료/부산광역시(888-1825)

7

2018 BCCC 힐링포럼 19:00
대 초대
부산광역시 컨택센터협의회(850-2012)

8

가족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16:00
소 전석 3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가족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16:00
소 전석 3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1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발레단
내한공연 '호두까기 인형' 19:30
대 11만원·9만9천원·7만7천원·4만4천원·2만2천원
예술기획(010-4909-7444)

어린이뮤지컬 '눈의 여왕' 10:30
소 초대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936-7011, 내선 211)

13

2018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14:00, 18:00
대 초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633-0260)

14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송년특별
기획공연 '론 브랜드의 재즈크리스마스' 19:30
소 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15

어린이뮤지컬 '공룡메카드 어드벤처 월드'
11:00, 14:00, 16:30
대 5만5천원·4만5천원
동그라미그리기(1577-5868)

2018 크리스마스 특집 '수리수리 매직쇼'
11:00, 14:00, 16:00
소 전석 3만원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19

이상열 크리스마스 신디사이저 콘체르토
18:00
대 7만원·5만원·3만원
2310 엔터테인먼트(02-578-3188)

20

코믹 락 뮤지컬 '프리즌' 20:00
소 전석 5만원/이끌림부산(1644-5764)

21

코믹 락 뮤지컬 '프리즌' 20:00
소 전석 5만원/이끌림부산(1644-5764)

22

윤수일밴드 '활활한 콘서트' 15:00, 19:00
대 7만7천원·6만6천원·5만5천원
부산일보사(461-4437~8)

코믹 락 뮤지컬 '프리즌' 16:00, 19:00
소 전석 5만원/이끌림부산(1644-5764)

26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유령신부' 14:00
소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27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부산시민회관 송년음악회' 19:30
대 전석 1천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28

뮤&오 베리타 창단뮤지컬 '빨래' 19:30
소 Bell 연기뮤지컬예술원(010-7929-0199)

29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오페라 ‘카르멘’ 울릉대첩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카르멘’

세비야의 퀸카 카르멘에 무관심한 군인 돈호세를 유혹하는 그녀는 자신 대신 감옥에 간 그를 위해 파스티야의 선술집에서 기다리며 사랑을 확인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카르멘의 마음은 멋장이 투우사 에스카미요에게 향하고 그 질투에 결국 돈호세는 카르멘을 죽이고 스스로 절규한다.

국립오페라단 ‘카르멘’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 3년차인 2008년, 2006년부터 이미 나는 전국 방방곡곡 오페라 시리즈로 그야말로 안가본 곳 없이 한국의 곳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국립오페라단-가 귀찮더라도 온 국민에게 좋은 오페라를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도시부터 시작한 순회공연은 중소도시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내가 평생 가고싶었던 곳 중 하나인 그곳, 울릉도 공연이 잡혔다. 울릉도 최초의 오페라 작품을 연출한다는 사실은 너무 의미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 도전할 수 있는 설렘 그 자체였다.

2008년 5월, 울릉도 최대 규모의 한마음회관이 나의 ‘카르멘’으로 개관공연을 하게 되었고 이 공연에 울릉도민 어린이합창단을 출연시키는 획기적인 기획을 추진했다. 사실 오피스에서는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혹시 그 어린이 중 누군가는 언젠가 성악가로 성장하는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다면 참 좋은 일이 아니겠냐고 생각으로 울릉 오페라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세상에! 울릉도에 접안해서 그 땅을 밟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는 당시에 상상도 못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동해항, 포항항 두 곳에서만 배편이 있었다. 시간상으로는 동해항에서 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1년 평균적으로는 포항 출발편이 도착 가능성이 높아서 캐스트, 합창단, 무용단, 무대 스태프 등 거의 1백여명이 포항에서 하루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 배를 타고 갈 예정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본 포항 북부해수욕장 부근은 참 고즈넉하고 좋았다. 거기서 몇몇 성악가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낭창하게 울릉도로의 입성을 기다렸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배를 탈 수가 없었다. 아니 배가 기후문제로 뜰 수가 없었다. 일기예보에서 늘상 기상 캐스터가 말하던 ‘먼 바다의 파도는...’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정보였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묵게 되었다.

아!... 그런데 그 다음날도 배가 안간단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틀을 아무일 안하고 있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임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결국 국립오페라단 오피스에서는 동해항 출발을 요청했고, 새벽 2~3시경 포항에서 동해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지금도 기억나는것이 버스안 모든 승객이 취침 모드였고, 기사님이 졸



음 운전해서 큰일 날뻔한 순간, 맨 앞자리에서 앉아있던 내가 소리쳤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친신만고 끝에 동해항에 도착해 다시 배를 타고 2시간여 항해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배 멀미하는 일행들로 난리가 났다. 다행히도 해군 군악대 출신이라 멀미는 하지 않던 나는 스태프들을 손마사지하거나 맛있는 울릉도 호박엿을 사준다고 달래면서 진정을 시켰다. 함께 타고 있던 울릉도민 역시 이렇게 파도가 거센데 왜 출항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팀들에게 “육보네, 젊은 사람들, 쫓쫓쫓”하며 위로해줬다. 하지만...하지만... 하지만...울릉도는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울릉도 도착하기 직전 접안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도가 높아 눈앞에 보이는 섬을 두고 다시 동해항으로 리턴을 하게 되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Mamma mia!!!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들 침묵에 휩싸인채 동해항으로 입항하고 있는 그 때, 오피스에서는 현재 모든 팀원들이 너무 힘들고 거기 가서 제대로 된 리허설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항이 금지된 동해항을 떠나 다시 포항항으로 가서 출항을 시도해보아야 하는데 거기서도 출항이 미정이니 공연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내게 제안을 했다. 우리가 출발하기 사흘전에 울릉도로 들어간 무대 제작팀은 무대를 다 만들고 우리가 오

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우리는 녹초가 된 상태였다. 나는 동해항 선착장에서 합창단 총무에게, 캐스트들에게, 무용단 리더에게, 연출부 스태프들에게 오피스의 의견을 전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난다. 합창단 총무가 빛나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우리 국립 아닙니까? 우리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야죠”하며 끝까지 노력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성악가들도, 무용단도, 스태프들도 한결같이 우리를 부르는 곳에서 오페라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감격이었다. 포항항까지 다시 가는 버스안에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꼭 밝은 태양이 떠올라 우리가 울릉도의 땅과 하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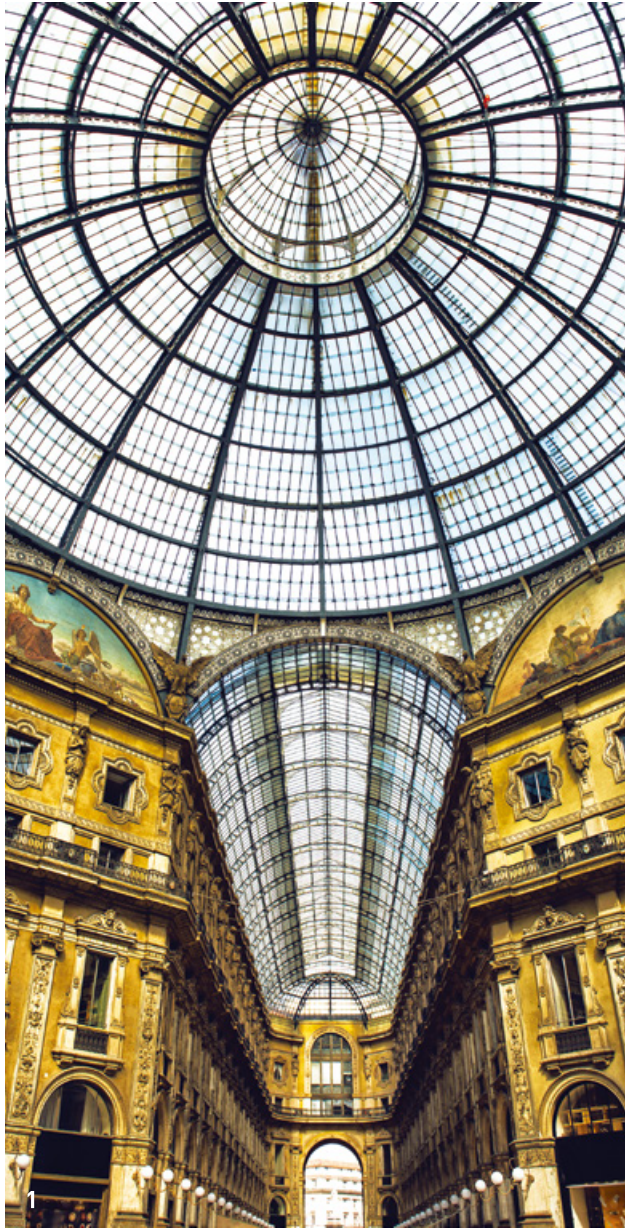
그 다음날 늦은 오후, 울릉도 한마음 문화회관에서 힘든 줄도 모른채 리허설을 하며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격했다. 포항항에서 다시 출항하여 또 다시 출렁이는 파도에 배 멀미하며 그 목표의 땅 울릉도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 놓고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 보니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못올까봐 안올까봐...오기를 기도했다며, 툭툭 뜯어낸 그 눈빛의 소망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했나 보다.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항구에서 우리를 알아보는 도민들의 배움을 받으며 '카르멘-울릉대첩'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탈리아 통일 역사를 담고 있는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 (Pinacoteca di Brera)

옷 잘 입고 오세요

밀라노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필자에게 했던 말이다. 처음에는 밀라노가 북쪽에 있으니 필자가 사는 로마에 비해 더 춥다는 말이라고 이해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평소 기능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옷을 입는 형이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서 충격에 빠질까봐 미리 말해준 동생의 사려 깊은 충고였다.

밀라노에 도착하니 과연 그곳은 패션의 도시였다. 필자도 나름 이탈리아에 살면서 패션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밀라노 사람들을 만나니 서울 쥐, 시골 쥐 이야기가 계속 떠올라서 사촌동생과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다. 패션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으로 알려진 밀라노는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고구려처럼 이민족의 공격과 영향도 많이 받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후 19세기 이탈리아 통일 운동의 주축으로 성장하게 된다.



글·사진 김성민 (현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1 아케이드 형식으로 지어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2 밀라노 두오모 성당
3 밀라노 전경 4 미술관에서 설명듣는 이탈리아 학생들

브레라(Brer)지역과 미술관의 탄생

브레라(Brer)는 중세시대 그 지역 언어였던 브라이다(braida)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과 비슷한 '초원'이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현재 브레라 지역은 예전 밀라노를 다스리던 스포르차 공작의 성과 고급 명품가게들이 즐비한 몬테나폴레오네(Montenapoleone) 근처에 위치하고 있

어 도시의 심장부라 할 수 있고 현지인과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지역이다.

원래 미술관 건물은 16세기 예수회를 위한 수도원이었으나 이후 1773년 예수회가 교황청의 박해로 이 건물을 떠나게 되자 당시 북부 이탈리아에 영향력을 끼치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리아 테레시아(1717~1780)의 명령에 의해 예술학교가 설립되었



5



6



7



5·6 안드레아 만테나의 '비탄의 예수'. 극단적인 단축법을 통해 예수의 고통을 실감나게 표현한 만테나의 천재성이 돋보인다.

7 베네치아의 화가 조반니 벨리니의 '피에타'

8 브레라 미술관 내부 정원. 1층은 예술학교, 2층은 미술관이다. 1809년 미술관을 시작했던 나폴레옹의 조각이 정원 가운데 있다.

고 이것이 현재 미술관 1층을 차지하고 있는 브레라 예술학교의 기원이 되었다. 예술학교는 점점 작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본격적인 미술관의 설립은 이탈리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에 의해서이다. 나폴레옹은 전략적으로 밀라노를 이탈리아의 수도로 삼았고 북이탈리아의 수도원이나 성당에서 빼앗은 수많은 작품들을 브레라로 옮겨왔다.(물론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국의 작품을 훔쳐서 프랑스로 가져갔던 나폴레옹이 약탈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버린 작품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브레라 미술관에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특히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베네치아에서 활약했던 화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

극단적인 단축법을 구현한 만테나

15세기 이탈리아 화가들은 대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극단적인 단축법으로 그려진 '비탄의 예수'(Lamentation of Christ, 흔히 죽은 예수로 알려져 있다)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그림을 그린 안드레아 만테나(Andrea Mantegna, 1431~1506)는 베네치아 근교에서 태어나 초기에는 고대 로마의 작품과 함께 특히 조각가 도나텔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후 베네치아 초기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야코포 벨리니의 사위가 되면서 기존의 견고한 자신의 작품에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색채를 더했던 화가이다.

단축법(scorcio)은 원근법의 일종으로 어떤 대상을 특정 각도에서 보았을 때 실제 길이보다 짧게 보이는 현상을 평면에 구현함으로써 그림의 원근을 더하는 회화기법이다. 브레라 미술관 7번방에 있는 만테나의 작품을 보면 죽은 예수가 있다. 대부분의 예수가 세로로 길게 누워있는데 비해 만테나의 작품 속 예수는 머리는 12시 방향, 발은 6시 방향으로 그림 밖 감상자와 거의 나란하게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화면 밖 감상자가 예수의 발끝 조금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의 발부터 다리, 상체가 점점 단축되어져 있다. 특히 차가운 대리석 밖으로 조금 튀어나온 예수의 두



받은 감상자의 시선을 강렬하게 집중시키는데 이것은 단순히 단축법 재현의 목적을 뛰어넘어 단축법을 통해 발등의 못 자국을 강조함으로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더해주는 만테냐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시대를 표현한 브레라의 대표 작품 프란체스코 헤이즈의 키스

브레라 미술관은 약 1,000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베네치아의 유명한 벨리니 형제의 작품들이나 라파엘로 초기 작품, 바로크의 대가 카라바조 등 양질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브레라 미술관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역시 프란체스코 헤이즈(Francesco Hayez 1791~1882)의 '키스(kiss)'를 꼽을 수 있겠다. 이 작품을 그린 헤이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밀라노 브레라 예술학교의 학장으로 30년 가까이 활동했던 이탈리아 낭만주의 대표 화가이다.

작품 속 두 남녀의 아름다운 키스와 함께 특히 여성이 입고 있는 푸른 치마의 사실적인 묘사가 감상자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런데 이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그려졌던 시대상황을 알아야 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 북부 이탈리아는 프랑스, 오

스트리아와 가깝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1815년 나폴레옹 패망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민족의식이 확산되었고 특히 분열되어 있었던 그들은 통일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그림이 그려진 당시 북부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탈리아 통일의 주체세력인 수상 카밀로 카보우르 백작은 단독으로 오스트리아를 물리칠 수 없자 전통적인 적국이었던 프랑스와 관계회복을 모색했고 결국 1859년 프랑스, 이탈리아 연합군은 오스트리아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헤이즈의 '키스'는 바로 그 시대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그림 속 남성의 붉은색은 이탈리아를 상징하고 여성의 푸른색은 프랑스를 상징한다. 전통적으로 적국이었던 프랑스지만 지금은 통일을 위해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림자의 비밀

사실 이 작품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림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음침한 그림자의 모습이다. 키스하는 남녀를 지켜보는 이 음침한 그림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화합을 반대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인 관계를 봐도 꼭 이렇게 그림자와 같은 세력은 존재하는 것 같다. 국가적으로는 이런 그림자를 경계해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혹시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9 프란체스코 헤이즈의 '키스'



TRAVEL WITH YOU

테마가 있는 여행

22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청

늦가을 정취로 가득한 11월의 둘째주 금요일인 지난 11월 9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1월의 테마여행지는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청. 특히 이날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 안정숙 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지에서 있을 예술단과의 만남에 회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1 남사에담촌의 상징이 된 이씨고가 입구의 회화나무 2·3 고즈넉한 담장 너머 우리 전통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남사에담촌

2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한옥마을로 유명한 남사에담촌. 지리산 초입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된 바 있다. '예담촌은 고즈넉한 담장 너머 우리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어 '옛 담 마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담장 너머 그 옛날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남사에담촌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관광해설사 노창운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박씨, 이씨, 정씨, 최씨, 하씨, 강씨 등이 집성촌을 이룬 남사에담촌은 수많은 선비들이 가문을 빛내던 학문의 고장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강의 지명을 공자의 고향인 곽부의 니구산(尼丘山)과 사수(泗水)로 명명할 만큼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특히 3.2km에 이르는 아름다운 돌담길 안팎에는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고택과 고목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노창운 사무장을 따라 처음 찾아간 곳은 남쪽의 학문을 연마하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사양정사. 연일정씨 문중의 재실로써, 정면 7칸 측면 3칸으로 단일 건물로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양정사는 정몽주의 후손인 정덕영과 그의 아들 정종화가 남사로 이전한 선친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로, 주로 자손을 교육하고

문객을 맞아 교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양정사를 지나면 선명당과 최씨고가 앞뒤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고즈넉하면서도 단아한 한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선명당 마당 한켠에는 수령 220년이 넘는 단풍나무가 서 있는데 때마침 붉게 물든 단풍으로 회원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선명당을 지나면 남사에담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최씨고를 만날 수 있다. 3,000석 부잣집이었다고 전해지는 최씨고가는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2개의 중문을 두어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이곳 고택들은 화장실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최씨고가의 화장실에는 문조차 달려 있지 않아 모퉁이를 돌기 전 반드시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고 한다. 최씨고가에서 또하나 눈여겨 볼 것은 대문 안쪽에 단 거북이 모양의 나무 빗장으로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 빗장을 만지면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남사에담촌의 마지막 방문지는 이 곳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 이씨고가로, 특히 고택 입구에 자리한, 이제는 남사에담촌의 상징이 되어버린 X자형 회화나무 두 그루로 유명하다. 이씨고가는 성주 이씨의 종가인 이상택 고택으로, 각각 18세기와 20세기에 지은 안채와 사랑채가 2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함께하고 있어 문화재로도 그 가치가 높다. 이씨 고택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수령 300년의 회



4 남명기념관에 자리한 남명 조식 선생 동상 5 부산시립무용단 단원과 함께하는 강강술래 6 동의보감촌의 소원성취 명소인 복석정

화나무는 일명 '부부나무', '사랑나무'로 불리는데, 이 나무 아래를 통과하면 금실이 좋은 부부로 백년해로한다고 한다. 또, 이씨고가 마당 한 켠에는 삼신할머니 나무라 불리는, 수령 450년의 회화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나무 몸통의 썩 파인 부분에 손을 넣고 발뽀하면 아이를 점지해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노창운 해설사가 풀어내는 고택에 얽힌 재미나는 해설에 어느새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정기회원 가족들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 안정숙 씨로부터 민속무용인 강강술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 춤사위를 먼저 익힌 후 회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크게 원을 그리며 한바탕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약초향주머니 만들기'에 나선 회원들은 계피, 박하, 당귀, 약쑥, 팔각향 등 약초를 섞어 자신만의 특별한 약초향주머니를 만든 후 인근 마을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맛있는 약초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오후 첫 일정은 산청을 대표하는 인물로 조선 중기 유명한 유학자이자 고고한 선비였던 남명 조식 선생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지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위해 지었던 산천재와 선생의 탄생 500주년을 맞아 2004년 8월에 문을 연 남명기념관을 둘러봤다. 지리산이 바라다보이는 산천재 앞에는 산천재가 완성되던 1561년 선생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수령 450년이 넘는 매화나무가 서 있다. 남명매라 불리는 이 매화나무는 단속사지 정당매, 남사 하씨 고택의 원정매와 함께 산청 3매로 불리는데, 매화가 만개하는 3월 말이 되면 짙은 매향을 맡기위해 수많은 탐매객이 찾아온다고 한

다. 산천재 맞은편에 자리한 남명기념관은 남명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유품과 관련 자료들이 보관, 전시되고 있다.

산청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동의보감의 고장으로도 유명한 산청이 한방약초, 한의학의 성지로 만들고자 조성한 동의보감촌. 산청은 예로부터 당대 최고의 명의로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과 조선 후기,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쳤던 초삼, 초객 형제 등 명의들로 이름난 전통한방의 본 고장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한방테마파크로 조성된 동의보감촌은 기체험장, 한의약박물관, 한방자연휴양림 등 편의시설 외에도 한방, 향노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특히 이 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일명 '기바위'로 알려진 귀감석, 석경, 복석정으로 이 곳은 소원성취 명소로 이름나 있다. 우선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있는 '귀감석'은 127톤 규모의 거북이처럼 생긴 큰 바위로, 이 바위의 기를 받으면 무병장수,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천부경이 새겨진 '석경'은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으로 무게가 60톤에 이르며, 솔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의 복석정은 하늘과 땅에서 충만한 기운을 담아 놓았다가 사람에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복석정 위에 동전을 세우면 원하는 바가 이뤄진다는 해설사의 설명에 회원들은 너나 할 것없이 동전 세우기에 열중한다.

동의보감촌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기바위를 통해 전해받은 충만한 기운처럼 이번 산청 테마여행은 정기회원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1.11 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해뜨는 도시 포항

전국 최대의 일출 명소 호미곶과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를 품고 있는 해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포항의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모습을 돌아보며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설게해본다.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포항 도착, 국립등대박물관 탐방
- 11:00 호미곶 해맞이광장, 새천년기념관 탐방
- 12:00 중식
- 13:00 포스코 견학
- 15:00 죽도시장 탐방
- 16:0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업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업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12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김기현(금정구 반송로)	송만오(남구 석포로)	임경자(남구 용호로)
김수진(부산진구 신천대로)	윤영기(남구 유엔평화로)	정혜숙(해운대구 좌동순환로)
김정순(사하구 하신번영로)	이경향(남구 수영로)	
김종숙(연제구 거제천로)	이재일(남구 황령대로)	

기존 회원

권영숙(남구 못골번영로)	김은숙(남구 황령대로)	이혜수(해운대구 좌동순환로)
김길자(남구 우암로)	김희숙(서구 흑교로)	정례수(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김명숙(해운대구 센텀중앙로)	박애경(연제구 월드컵대로)	
김서령(금정구 식물원로)	안영수(금정구 중앙대로)	

Adieu 2018 Rhapsody & Dance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9회 정기연주회

Program

- 샤브리에 | 스페인 광시곡
- 라벨 | 씨간느
- 모차르트 |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 번스타인 | 캔디드 중 '화려하고 즐겁게 되리라'
- 오펜바흐 |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 마르케스 | 단조 제2번
- 리스트 | 헝가리 랩소디 제2번
- 보로딘 | 플로베츠인의 춤

2018.12.18 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김성혜

바이올린 임재홍

지휘 김봉미

소프라노 오신영

기타 장하은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균일 2,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0(청소년교향악단)

서울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안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콘서트

2018. 12. 25(화)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프로그램 | Christmas medly,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고요한 밤 거룩한 밤,
John Rutter 'Gloria', 'Look at the world',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이건륜 'Magnificat' 외

* 본 공연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티켓 | 전석 2,000원(자유석)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문의 | 051.607.3117

미라클라스 콘서트

MIRACLASS CONCERT

로만티카

ROMANTICA

박강현 ※ 정필립 ※ 김주택 ※ 한태인

크로스오버의
새 지평을 열다!

12.9(일) 6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유료회원 10%할인 (1인2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예매시)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고주망태



을 한해 '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순우리말인 '고주망태'를 '외로워서(孤) 술(酒) 한 잔 하고, 잊고(忘) 싶으나 결국 자신이 택할 마지막 태도(態)는 무엇인지'를 묻는 새로운 해석의 '고주망태(孤酒忘態)'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은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특별한 공감의 시간을 통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 '고주망태(孤酒忘態)'의 마지막 단어인 '태(態)'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우리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해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KNN방송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해금연주자 나리의 협연으로 관현악 명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로시니 오페라 '도둑까치' 서곡, 핀란드의 국민작곡가 시벨리우스의 대표곡인 '핀란드야', '운명교향곡'으로 유명한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그리고 대만의 유명 작곡가 리체이가 부산에 머물며 4개월에 걸쳐 작곡한 '부산환상곡' 중 제2악장 '도라지'를 들려준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인문·과학·예술 분야 국내 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
- 4.태(態)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우리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위로와 해답을 전하는
'노자와 베토벤' 2018년 마지막 무대가 12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健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협연자 양경아는 미국 맨하탄음대 및 동대학원, 메릴랜드대학교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노스체코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렌치챔버오케스트라, 슬로박챔버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아메리칸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아카데미심포니 등과 협연무대를 가져왔으며 솔리스트, 실내악 연주자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지난해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금주자 나리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을 졸업하고 제8회 대구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을 비롯해 제19회 신라문화제 전국국악대제전 최우수상, 제3회 대한민국게임영상음악제 대상 및 명예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경아와 나리는 이번 무대에서 지난 2014년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콘서트에서 초연되고 소니(SONY) 레이블을 통해 발매된 바이올린과 해금을 위한 협주곡인 '부산환상곡'을 초연무대에 이어 다시한번 호응을 맞춘다.

일시 12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JTBC의 음악경연 프로그램인 '팬텀싱어' 시즌 2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미라클라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리톤 김주택과 보석 같은 보이스의 뮤지컬 스타 박강현, 긴 강하고 색다른 음색의 스피노 테너 정필립, 크로스오버형 만능 베이스 한태인 등 실력과 보컬리스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설적인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와 비슷하다고 해 '동양의 카푸칠리'

로 통하는 김주택은 2010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만장일치 최고 점수로 졸업하고 아라갈 국제성악콩쿠르 최연소 특별상, 테발디국제성악콩쿠르 신인 기대주 특별상,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1위, 국립오페라단 콩쿠르 대상 등 우수 국내의 콩쿠르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성악가이다. 최근 큰 화제를 불러모은 뮤지컬 '웃는 남자'의 그윈플렌역으로 다시한번 주목받은 뮤지컬 배우 박강현은 2015년 뮤지컬 '라이어타임'으로 데뷔한 후 '베어 더 뮤지컬', '이블데드', '광화문연가', '킹키부츠' 등 쉬지 않고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으며, '웃는 남자'로 제7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나 고향인 김해로 내려가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던 독특한 이력으로 '농부 테너'라는 별명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라클라스 콘서트 'ROMANTICA'

기적(Miracle)과도 같은 클래스(Class)를 자랑하는 4인조 팝페라 그룹 '미라클라스'가 12월 9일 부산에서 첫 단독콘서트를 갖는다.

이 붙었던 정필립과 '만능 베이스라 불리면 댄디한 무대매너로 사랑받았던 서울대학교 성악과 재학생인 한태인은 '필인'이라는 2인조그룹을 결성, 재즈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크로스오버와 정통 재즈의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그들의 첫 앨범인 'ROMANTICA(로만티카)'를 발매하면서 미라클라스만의 음악과 매력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나가

고 있다. 이 데뷔음반에서는 '팬텀싱어' 생방송 결승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역대급 명곡이라는 평을 받은 'Feeling'를 비롯해 영화 '가을의 전설'의 메인 테마곡인 'The Ludlows'에 한글 가사를 입힌 '집으로 가는 길', 영화 '레미제라블'의 'I Dreamed A Dream', 그리고 신곡인 '이젠 알아요'까지 멤버들의 음색과 팀의 다양한 매력들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곡이 수록되어 있다.

데뷔음반 발매를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첫 단독콘서트에서는 데뷔 앨범의 신곡들과 방송을 통해 큰 사랑을 받은 'Feelings', 'Notte' 등 명곡들로 미라클라스 특유의 파워풀하고 클래식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미라클라스

일시 12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주)WSM 1566-5490

입장료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 B석 5만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프리뷰



지난 1998년 2월 창단한 부산시립극단은 그동안 고전극에서부터 사실극, 부조리극, 악극, 뮤지컬, 한국 현대극 등 저명한 작가들의 다양한 시대적 작품과 부산의 원로 연출가 및 신예 연출가 등 다양한 객원 연출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 3월,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조명한 연극 '맥베스를 시작으로 7월, 전통설화를 소재로 이를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창작뮤지컬로 제작한 '상상화에 이어 기념공연 마지막 작품으로 무대에 오르는 연극 '이(爾)-왕의 남자'는 영화 '왕의 남자'로 더욱 유명해진 작품으로, 지난 2000년 초연되어 한국연극협회 올해의 연극상, 희곡상, 연기상, 2001년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기상 등 연극계의 굵직한 상을 휩쓴 작품이다.

'이(爾)'란 조선조때 왕이 신하를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극중에서 연산군이 자신이 아끼는 궁중광대 공길을 부르는 호칭이다. 연산군의 눈에 들어 낫은 신분인 천민에서 희락원 종4품이라는 지위까지 오른 역사적 실존인물인 궁중 광대 '공길'의 이야기로, 온갖 천대와 멸시에도 누구보다 떳떳했던 궁중 광대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음모,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왕과의 애뜻하고 미묘한 관계를 다루고 있다. 중중반정이 있

**부산시립극단 제63회 정기공연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III**

이(爾)-왕의 남자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극단이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이(爾)-왕의 남자'가 12월 13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기까지 12년 동안 왕위에 있는 연산은 모성 결핍과 정쟁 속에 비틀린 성격을 갖게 되고 두 번의 사화를 통해 많은 사람을 죽인다. 역사 속에서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군은 이 작품에서 폐비가 되어 죽은 어머니에 대한 상처와 그리움, 이에 따른 고독감을 다채롭게 표현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연산의 결핍을 채워주고 위로하는 궁중 광대 공길, 진정한 광대로서의 삶을

살다 간 장생, 연산군의 연인이자 공길의 연적이었던 녹수 등 개성 강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얽혀 마치 실제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특히 이번 작품 '이(爾)-왕의 남자'는 연출을 맡은 부산시립극단 관공필 예술감독이 지난 2002년 제20회 전국연극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수상해 화제가 된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공길 역의 염지선, 장생 역의 이혁우, 연산 역의 황창기, 녹수 역의 김은희 등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을 비롯해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 고인범, 극단 도깨비 대표 김아현, 연극배우 박호천,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심상고 등 지역 연극계 인사들이 특별출연, 새로운 20주년을 준비하는 부산시립극단의 창단 20주년을 함께 축하한다.

이(爾)-왕의 남자

일시 12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신흥무관학교



올해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제작된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역사의 기록에 이름을 남기진 못했지만, 일제에 항거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1911년 서간도(길림성 류하현)에서 개교한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는 서로군정서 의용대,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 무장 독립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며 민족 해방에 크게 기여했다.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1907년부터 1920년까지, 경술국치 전후의 역사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에 집중하기 보다는 혼란과 격변의 시대 한복판에서 있었던 인물들의 삶을 깊이 조명한다. 더불어 그 속에서 등장하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 경술국치, 고종 승하, 봉오동 전투, 청산리대첩 등 역사적 사건들은 작품의 이야기에 드라마틱함을 더하는 주요한 시대 배경이 된다. 특히 동규, 팔도, 나팔, 헤란으로 대표되는 젊은 청년들의 우정과 희생의 이야기는 관객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든다. 각기 다른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모였지만, 신흥무관학교에서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네 사람의 모습은 공연 내내 때론 정답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
항일 독립전쟁의 선봉에 섰던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담아낸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가 부산을 찾는다.

고 때론 유쾌하게 그려지며 이후 혼란된 독립군으로 성장한 이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숭고한 희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울림과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다. 여기에 주인공들의 주변에 배치된 다양한 인물 군단은 네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부대를 탈출하여 광복군 사령관이 된 지청천, 경술국치 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

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양성에 기여한 이상룡, 이회영, 이은숙 등 실존 인물이기도 한 캐릭터들은 작품 속에서 중형 무진 활약하며 드라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탄탄한 연기력과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는 최고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배우 지창욱과 강하늘, 그룹 인피니트 성규를 비롯해 실력있는 배우들이 다수 출연해 무대를 가득 채운다. 작품 속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전투 장면은 무술과 안무가 결합된 현란한 액션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시대 배경과 변화를 역동적으로 담아내는 무대와 조명, 역사적 고증과 연극적 상상력을 결합한 영상과 의상은 작품의 매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일시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15일 토요일 오후 2:00, 7: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B석 6만6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프리뷰



수석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악장이자 부산클래시컬뮤직소사이어티 음악감독, 경남솔로이스츠 리더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과 오페라 전문연주자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김성혜, 오신영, SBS 스타킹, tvn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2 등 방송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천재 기타리스트 장하은이 출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화려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선율이 인상적인 샤브리예의 '스페인 광시곡'을 첫 곡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이 협연하는 라벨의 '찌간느'로 송년음악회의 시작을 알린다. 원숙한 음악성과 인간애의 조화로 예술혼을 보여주고 있는 임재홍은 영국 런던 길드홀 음악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잘즈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Concours International des Jeunesses Musicales Belgrade에 참가, 한국인 최초로 입상, 최연소자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9회 정기연주회

Adieu 2018
Rhapsody&Dance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며 우리 귀에 친숙한 랩소디와 춤곡, 오페라 아리아로 송년의 흥겨움을 선사해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송년무대 'Adieu 2018 Rhapsody&Dance'가 12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로, 소프라노 김성혜, 오신영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리', 번스타인 오페레타 '캔디드' 중 '화려하고 즐겁게 되리라',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로 송년의 흥겨움을 북돋워준다.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아, ARENA, A.M.I, ROMA 아카데미아를 졸업한 김성혜는 마리오 델 모나코, 줄리에타 시미오나토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뉴욕 메네스음대 석사 과정을 졸업한 오신영은 로시니 'La Scala di Seta' 주역으로 뉴욕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서왔으며 2018 올해의 신진여성문화인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어서 중남미 특유의 열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마르케스 '단존' 제2번에 이어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제2번을 천재 기타리스트 장하은의 협연으로 들려주며, 마지막 곡으로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으로 송년무대를 마무리한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타과에 재학중인 장하은은 다수 무대를 통해 차세대 연주자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Adieu 2018

일시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

2018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송년 무대로 사랑받아온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는 올해도 '합창'으로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올해는 완벽을 향한 열정과 진지함,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사랑받고 있는 지휘자 임현정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양제경,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조중혁, 바리톤 허준훈이 솔리스트로 출연, '합창'의 감동을 전해준다.

지휘자 임현정은 지난 25년간 음악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상'을 수상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수장이자 지난 2014년부터 3년간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한국 교향악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마에스트로이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통해 국내에 '말러 신드롬'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함으로써 대작곡가들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과 연주로 대한민국 교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6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73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18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며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2018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가 12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악단의 수준을 한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정적인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해외 유수의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프라노 양제경은 세계적인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하는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오페라 '피델리오'의 마르첼리네 역으로 무대에서 미국의 주요 비평가들과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현재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적이고 벨칸토적인 색채의 역할들

로 큰 주목을 받아온 김정미는 동시에 탁월한 연기력과 함께 남성 역할을 맡는, 일명 '바지역' 메조의 역할도 함께 개척하며 한국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7년 독일 칼스루에 국립극장의 테너 솔리스트로 발탁되어 모차르트 '돈조반니'로 첫 데뷔무대를 가진 조중혁은 오페라, 오페레타, 오라토리오, 미사, 뮤지컬을 넘나들며 현재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0 스페인 빌바오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주목받은 허준훈은 유럽의 명문이라 불리는 스페인 발렌시아 극장(플라시도 도밍고 센터) 출신의 실력과 가수로 현재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일시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프리뷰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호두까기인형’은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환상적인 안무가 돋보이는 발레작품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겨울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독일의 낭만파 작가인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왕을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뒤마가 각색한 ‘호두까기인형’은 당시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수석 안무가였던 마리우스 프티파가 다시 발레 대본으로 제작한 후 차이콥스키가 음악을 입히고 볼쇼이발레단 예술감독인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안무를 맡아 189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황실극장(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무대를 가졌다.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은 주인공 마리가 꿈 속에서 겪게 되는 환상적인 모험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장식하는 작품답게 화려한 볼거리와 수준 높은 춤들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2005년 모스크바에서 창단된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은 모스크바를 비롯해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페름 등의 유명 안무학교를 졸업한 무용수들과 마린스키 키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
내한공연
‘호두까기인형’

러시아 클래식 발레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러시아 최고의 무용수로 구성된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이 12월 24일
 ‘호두까기인형’으로 부산을 찾는다.

프극장, 림스키코르사코프 컨서바토리, 노보시비르스크발레오페라극장, 페름발레오페라극장 등 러시아의 유명발레단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잘 알려진 주역들은 탁월한 기량과 세련된 안무기법으로 러시아 고전발레의 전통과 가치를 되살리고 있으며, 그들의 우아한 손끝과 드라마틱한 표현력은 발레단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은 그동안 호두까기인형, 지젤, 돈키호테, 카르멘 모음곡,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 명작 레퍼토리 외에도 마리우스 프티파, 바실리 바이노넨, 알렉산더 고르스키, 레브 이바노프, 장 코탈리, 쥘 페로 등과 같이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면서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만의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여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예술적 기량과 국제적인 경험을 지닌 세계 정상급 무용수들이 출연, 한 편의 동화와 같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으로 온 가족을 위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한다.

호두까기인형

일시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구름에 달가듯이 & 한국의 소리와 두드림



지휘 이정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있는 정영진이 사회를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있는 김점순, 김보연, 이소정,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 김병오,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이수자 강권순,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유채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이수자 김용호, 제2회 박동진 명창, 명고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수상자 박

천음, 전북도립국악예술단 창극단 부수석 박영순, 타악 연주자 장재효, 색소포니스트 전성현,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멋과 신명이 넘치는 소리와 타악 연주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국악인 민영치가 작곡한 국악관현악 '세줄'(여민락을 위한 Bolero)를 첫 곡으로,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그동안 사물악기의 단조로운 반주로만 행해져온 비나리의 종래 형식에서 탈피해 대규모 편성의 관현악과 창(唱)이 어우러지는 이준호 곡 '우리비나리'를 소리꾼 김점순, 김보연, 이소정의 소리로 들려준다. 김점순은 2013년 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 장원, 2013

부산시립국악단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구름에 달가듯이 & 한국의 소리와 두드림'

신명 넘치는 우리음악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_구름에 달가듯이 & 한국의 소리와 두드림'이 12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년 제19회 경기국악제 대통령상을, 김보연은 제15회 경기국악제 대통령상을, 이소정은 전국민요대회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한'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이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김병오와 1999년, 2011년 KBS국악대상(정가 부문)을 수상한 강권순의 소리로 들려준다. 판소리 다섯마당 중 하나인 '적벽가' 중 '화룡도는 제27회 가야금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유채진의 가야금병창으로, 남해안 별신굿 구

음과 국악관현악 '가망굿(수부시나위)'은 현재 대구시교육청 대구예술영재교육원국악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김용호의 소리, 징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곡은 무속음악인 '진도씻김굿'을 모티브로 한 국악 레퀴엠 '진혼'으로 소리꾼 박천음, 박영순과 부산시립합창단이 종교를 뛰어넘어 죽은자의 영혼을 위로한다. 마지막 곡인 국악관현악을 위한 장구협주곡 '아홉(A-HOPE)'은 소나기 Project 대표이자 다국적 월드뮤직그룹 'Cuatro Minimal' 멤버인 장재효의 설장구, 소나기 프로젝트 단원인 전성현의 색소폰 협연으로 들려준다.

일시 12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프리뷰



이번 무대에서는 부활 역대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큰 사랑을 받고있는 가수 정동하와 국내외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출신의 팝페라 듀오 '휴(HUE:休)',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재즈 콰텟 '4nowquartet'가 출연, 재즈에서부터 크로스오버, 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첫 무대를 장식할 팝페라 휴는 부산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인연을 맺었

던 소프라노 김지현과 테너 류무룡이 의기투합해 지난 2005년 결성된 국내 최초의 혼성 팝페라 듀오로, 국내외의 다른 팝페라 가수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대중적 코드의 부드러운 발성과 클래식한 코드의 성악적 발성이 공존하며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파워풀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재해석하여 크로스오버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휴(HUE:休)'는 '쉬, 안식'이라는 의미의 '休'와 '빛깔'이라는 뜻의 'HUE'를 접목해서 만든 이름으로, 휴만의 음악적 빛깔로 듣는 모든 이에게 안식과 쉬를 주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I Believe, 겨울의 어느 멋진날에, 넬라 환타 지아(Nella Fantasia), 타임 투 세이 굿바이(Time to Say Goodbye), 축배의 노래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부산시민회관 송년음악회

—
지난 한 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시민들과 소통해온 부산시민회관이 저물어가는
2018년을 보내며 아쉬움을 담아 마련한
'2018 송년음악회'가 12월 28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어지는 무대는 보컬리스트 서민진, 피아니스트 임정원, 베이스 트 정이령, 드러머 피오토르 파블락 등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재즈 콰텟 '4nowquartet'의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 'All of me', 'Dream a Little Dream of Me', 'My Romance' 등 화려한 재즈선율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이번 송년음악회의 마지막 주인공은 '라이브의 황제'라고도 불리는 가수 정동하.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9년간 대한민국 락 그룹 부활의 보컬로 활동하다 2014년부터는 솔로로 활동 중인 정동하는 특히 최근에는 TV 프로그램인 '볼후의 명곡', '복면가왕' 등에 출연하며 출중한 노래실력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노트르담 드 파리'를 비롯해 '잭 더 리퍼', '두 도시 이야기', '투란도트', '에드거 앨런 포' 등에 출연하기도 한 정동하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014년 올해의 신인상에 이어 2016년 올해의 스타상, 2017년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뮤지컬 배우로서도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푸루푸, 되돌려놔줘, 골목길, 사노라며, 생각이나 등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2018 부산시민회관 송년음악회

일시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2018 제야음악회



2018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9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제야음악회는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로부터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왔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최수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마련되는 이번 2018 제야음악회에서는 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피아니스트 조재혁,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뮤지컬배우 양준모가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화려한 금관악기 선율로 축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쇼스타코비치 '축전서곡'을 시작으로 음악회의 문을 여는 1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협연하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에 이어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3악장을 들려준다. 최근 한국인 최초, 최연소로 스위스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제2악장으로 선정되어 화제가 된 협연자 김재원은 독일 클로스터 쉐탈 국제콩쿠르 최연소 입상 및 특별상, 이태리 리피체 국제콩쿠르 최연소 입상 및 청중상 수상으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으며 2017년 프랑스 Banque Populaire재단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고등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에 다니며 정명훈 지휘자가 창단한 원코리아 유스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제야음악회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부산문화회관
2018년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되는 2부에서는 첫 곡으로 '대한민국의 클래식 통역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협연으로 거친의 '랩소디 인 블루'가 연주된다. 조재혁은 피아니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클래식 라디오의 게스트로, 해설음악회의 해설자로 그리고 다채로운 장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어서는 강렬한 연기력과 가창력의 소유자 뮤지컬배

우 양준모의 무대로 가고파, 오 솔레미오, 지금 이순간 등 우리에게 친숙한 가곡과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양준모는 러시아 국립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음악원과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뮤지컬학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했으며 2012년 제1회 예그린 어워드 남우조연상, 2014년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 남우조연상, 2017년 제6회 예그린어워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뮤지컬 '웹사이트 스토리'의 히트 넘버를 발췌한 번스타인의 역동적인 걸작 '심포닉 댄스'로 2019년 희망찬 새해를 노래한다.

한편 2부에 앞서 휴식시간에 마련되는 로비콘서트에서는 Retrospect 재즈앙상블이 경쾌한 재즈 연주를, 공연 후에는 풍류전통예술원이 신명넘치는 길놀이 공연으로 새해를 맞는 시민들의 한 해의 복을 빌어준다.

일시 12월 31일 일요일 오후 10: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가 부산을 찾는다.



2018년 12월 24일(월)~2019년 3월 3일(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아동 2만3천원, 성인 1만7천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주)PMC네트웍스 1599-7372

관람시간

- ▶ 평일(화~금요일) 오후 1:20, 2:00, 2:40, 3:20
- ※ 평일 오전은 단체관람으로, 일정에 따라 개인 관람 가능
- ※ 단, 성수기(12월 24일(일)~1월 6일(일)) 평일 오전 개인 관람 가능
- ▶ 주말·공휴일 오전 10:20, 10:50, 11:20, 11:50, 오후 1:20, 1:55, 2:30, 3:05, 3:45, 4:20
(체험시간 1시간 40분, 매주 월요일 휴관)

국내 최초로 오브제 체험전을 선보인 이영란 작가의 감성체험 콘텐츠인 ‘가루야 가루야’는 밀가루를 이용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오감만족 체험놀이이다. 물체극(오브제 아트)이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개척한 작가 이영란은 지난 2000년부터 흙, 물, 나무, 종이, 얼음, 밀가루, 돌가루 등 자연소재를 테마로 놀이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체험전을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장난감들로 어린이들의 오감을 일깨워온 이영란 작가만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루야 가루야’는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올해로 14년째를 맞으며 국내 최고의 어린이 체험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예매율과 만족도에서 독보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총 4개의 체험방으로 구성된 ‘가루야 가루야’는 밀가루로 그림을 그려보는 ‘가루나라 방앗간’과 밀가루 반죽과 잡곡들을 이용하여 나만의 빵을 만들어보는 ‘빵빵나라 제빵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반죽으로 국수가락을 뽑고 집, 자동차, 신발 등을 반죽으로 표현하는 ‘반죽나라 국수가게’, 통밀풀장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통밀나라 정미소’를 차례로 이동하며 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밀가루가 반죽이 되고 다시 음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가루가 떨어지는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다. 또, 밀가루와 반죽을 손으로 직접 만져도 보고, 밀가루를 직접 반죽해 구워낸 고소한 빵도 맛볼 수 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오감만족 체험놀이



프롤로그 가루길 산책하기

보들보들 부드러운 밀가루 길에서 밀가루를 밟으며 발가락이 먼저 인사해요

첫번째 방 가루나라 방앗간

형형색색 종이 위에서 하얀 밀가루로 그림도 그려보고 바닥에 밀가루를 소복이 뿌리고, 날리며 아름다운 밀가루 세상을 만들어봐요

두번째 방 빵빵나라 제빵소

말랑말랑 밀가루 반죽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조물조물 반죽과 달콤하고 고소한 여러가지 잡곡들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특별한 빵을 만들어봐요

세번째 방 반죽나라 국수가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반죽을 치고 뒤집고 눌러보고 밟아도보고 즉석에서 국수가락을 뽑아 연결하며 집, 자동차 등을 디자인해 보고 신발, 목걸이, 모자, 망또 등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놀랍고도 신기한 반죽으로 만들어와요

네번째 방 통밀나라 정미소

무릎까지 가득 채워진 통밀풀장 속에서 개구리헤엄도 쳐보고 살금살금 통밀속에 숨겨져 있는 친구 발도 찾아보고 통밀 한알 한알이 튀기며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소리를 들으며 자연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통밀친구와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봐요

에필로그 바람나라 안녕~

에어샤워로 몸에 따라온 가루를 날려보내며 인사해요

피아니스트와 일루셔니스트의 만남

조재혁 × 이은결 IMAGES



◆ 음악평론가 김윤선

‘건반위의 마술사’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만난 감성의 세계를 경험하였다.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솔리스트로서 클래식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라이브연주와 해설을 겸한 연주자로 클래식 음악의 범주를 넓히고 있는 조재혁의 뛰어난 통찰력과 더불어 과장 없는 섬세함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이루는 피아노 연주와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과 실험으로 일루션의 대중화를 이끌며 카리스마 있고 현란한 테크닉으로 마술 붐을 일으킨 이은결이 기존 마술에서 벗어나 ‘매직 콘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건반악기에 있어 완벽한 형식과 새로운 가능성, 아름다운 성취를 보이는 곡으로, 이 선율에 의해 꽃이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순간이 찰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면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마술사의 재치가 보이는 이미지로 ‘왕벌의 비행’ 연주는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쇼팽의 ‘빛방울 전주곡’에 아프고 힘들 때 영감을 떠 올린 작품을 ‘빛의 공명’이라는 주제로 비통한 슬픔을 검정비닐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하얗게 여기는 비닐을 통해 허무와 슬픔을 표현함으로써 창의적 형상과 사운드가 처마 밑 빛소리에 영감 얻은 쇼팽의 감성에 아픔, 애잔한 잔상을 깊이 남기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조재혁은 쇼팽 ‘발라드 1번 g minor’와 ‘4번 f minor’을 연주하였다. 쇼팽은 서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발라드’를 청중이 가진 각자의 스토리에 맡겨 스스로 이야기를 갖게 한다. 섬세하고 간결하게 그려낸 조재혁의 쇼팽 발라드는 웬지 화려하지만 어딘가 모를 풍성함 속에 우수와 멜랑콜리를 느끼게 하였다. 서정적 선율에 피아니스트한 조화를 이룬 두 곡의 발라드는 굳더더기 없이 거침

없고 진지하게 투명함을 자아내는 연주였다. ‘빛의 순환’이란 테마로 인상주의 음악의 선구자 드뷔시의 ‘아라베스크’에 두 아티스트의 콜라보가 이어졌다. 신기한 마술의 세계는 빛을 주제로 하며 회화적 요소와 빛을 음악화한 신비로움이 더해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은결의 마술은 빠른 손놀림으로 신비와 환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이상이었다. 단순한 시각적 자극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만의 철학을 담고 깊이 있는 표현과 감성, 감각을 동원하여 음악이 주는 청각적 자극으로 가슴 속에 형상화하는 작업이기에 더욱 흥미롭다. 특히 일루션에 있어 클래식음악과 결합에 뛰어난 감성으로 감정이입에 호소하고 있어 음악의 감동과 그의 동작이나 표현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자아낸다. 과정과 과정을 보여주는 마술에 감동적인 음악을 선곡하여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감상을 통해 음악에서 오는 심미적인 느낌을 잘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이미지를 표현하고 퍼포밍을 위주로 하는 마술의 세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도 보여주어 우리를 환상과 감상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탄생과 축복을 서정적으로 표현, 베버의 피아노 소나타제 1번 C장조 4악장 ‘무궁동’을 통한 두 사람의 손가락 배틀 등 인간이 느끼는 모든 초감각적 반응을 불러내며 음악이 주는 감동에 피아니스트의 테크닉이 더하여 이은결은 또 하나의 퍼포먼스인 핑거발레로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서로 다른 두 장르의 협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기분 좋은 공연이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연찬(連饌) 부산시립무용단 제 79회 정기공연 ‘업경대’



◆ 중국 연변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김영화

부산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부산시립무용단 공연을 처음으로 관람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연변대학교 민족민간무용 지도자로서 나의 제자들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무용가가 주역으로 출연한다. 안무가, 교육자로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없었다. 공연과 더불어 ‘부산시립무용단 아시아 춤 워크숍’에서 북한 춤 지도를 앞두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도와 교류가 가능한 것은 김용철 예술감독의 열린 마인드와 도전 정신에서 출발한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49일간의 생사관(生死觀)을 제의적 형식 속에 응축시킨 ‘업경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교적인 소재를 강렬하고도 원색적인 감정을 이입하여 몸으로 이미지화하였다. 작품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극장을 들어서면 경대와 같이 세워진 7개의 대형 거울이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와 신비감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1장 ‘거울이 부르는 노래’는 그렇게 시작된다.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한 첫 장면 중 삼인(三人)의 등장은 동양 철학과 아시아적 불교의식 이미지를 상상하게 한다. 7인의 염라대왕과 영정을 상징하는 나신의 무용수들은 작품의 시작부터 압도감과 서늘한 주검을 연상시킨다. 극의 시작과 동시에 몽한 음악과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한다. 2장 ‘영혼의 습지’. 10여 명의 여성무용수들이 무(無) 음악 속에 알 수 없는 고요함을 담아내고, 바지락 거리는 움직임은 청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중국에서는 무 음악을 사용하기에 쉽지 않은 장면이다. 서천의 꽃밭을 집요하게 표현하고 있다. 색다른 연출법이다. 공중의 하얀 가루 날림은 섬뜩한 기운과 놀라움으로 순간 공간을 바꿔버린다. 사이사이 현대적인 음악과 노이지(noisy) 효과, 예상

치 못한 전통 가야금의 불협화음이 이채로움을 더한다. 3장 ‘욕망의 무게’ 장면에서는 7명의 동물 이미지를 이미지화한다. 형상화 작업에 있어 중국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안무자의 독창적인 개성, 작품 구조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풀기 어려운 대목이다. 30여 명의 남성무용가들이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대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호흡을 빨아들인다. 무용수들은 공간과 리듬을 마시고 즐기는 듯하다. 이어지는 여성 군무와조를 이룬 2인무는 단순히 남녀 듀엣이 아니라 태양과 달, 모든 상반된 음양의 에너지들이 만나 이 세상이 아닌 유토피아를 꿈꾸는 조합을 연상시킨다. 폭발적인 리듬과 움직임은 숨 가쁜 호흡으로 내뿜는 무용수들이 객석으로 내려와 객석 전체를 대형 천으로 뒤덮는 퍼포먼스.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낸다. 4장 ‘지워진 자를 위한 난장’은 그렇게 시작된다. 바다인 듯 한, 어머니의 자궁인 듯 한 모든 옷을 탈의한 무용수들이 뒤를 보고 퇴장한다. 작품 보는 내내 막막함과 따스한 기운이 흘러내린다. 죽음과 삶 사이에 방황하는 현대인은 곧 망자이며,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하는 마음으로 생과 사는 불이(不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살아서는 볼 수 없는 가슴시린 한 장면으로 기억된다. ‘업경대’는 독특한 창작 기법과 상상력이 발휘된 무대다. 이것을 가능케 한 요인 중 하나는 안무자가 그동안 자국의 무용뿐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 일본 부토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주제를 진중하면서도 재치 있게 풀 어낸 안무자의 춤 철학과 실천에 박수를 보낸다. 기획의도에서 밝힌 것처럼 부산시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받기를 응원한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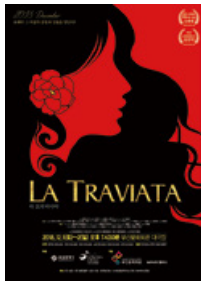
일 시 10월 16일(화)-12월 23일(일) 오전 11:00
(월요일 공연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
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는 마음 착한 아기 개구리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
지난해 가족극장으로 새롭게 단장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의 세 번째 정기 상연작으로, 매년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창작극을 선보여온 극단 더블스테이지가 백석 시인의 동명의 동화시를 각색해 무대에 올린 '개구리네 한술밥'은 아무리 바쁘고 내 할 일이 있어도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개구리 친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교훈을 전해준다.

2018 부산오페라 WEEK
뉴아시아오페라단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 시 12월 1일-2일 토-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C석 4만원
문 의 뉴아시아오페라단 1600-6867



파리 사교계의 미모의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의 순정적인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라는 명예와 함께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예술총감독/그레이스 조 • 연출/염숙정
• 지휘/실바노 코르시
• 출연/박은주, 박현진, 강훈, 이장원, 김기환, 석상근, 김민지, 이광진, 김정대, 박순기, 김민성, 박상진 외
• 연주/부산소알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뉴아시아오페라합창단, 메트로페라합창단
• 무용/뉴아시아무용단

제5회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010-3590-2434



지난 2011년 합창을 사랑하는 60여명의 시니어들로 구성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혼성합창단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울산원음합창단 지휘자, 신라시니어스콰이어 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은정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는 아쉬움을 담아 우리가곡과 가요, 라틴음악, 재즈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단장/조경남 • 지휘/이은정
• 피아노/조은지 • 사회/곽여순
• 게스트/소프라노 조성혜

트리오 하나리 창단연주회

일 시 12월 1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trio 하나리 010-5646-2153



첼리스트 하경희, 피아니스트 나예지, 바이올리니스트 이라희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트리오 하나리의 창단연주회.
지난 2017년 결성된 트리오 하나리는 그동안 클래식뿐만 아니라 폭넓은 장르의 음악을 통해 다양한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늘 새롭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깊이 있는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드/피아노 트리오 제39번 사장조 '집시'
F. 브리지/환상3중주 단단조 H.79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트리오 제2번 단단조 작품 67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010-2831-2836



지난 2016년 플루트 선율을 사랑하는 전공자 및 비전공자들이 모여 결성한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세 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는 201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부산관악콩쿠르에서 2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E. 쾰러/꽃의 왈츠 작품 87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슈타미츠/플루트협주곡 사장조 작품 29 등
• 음악감독/정옥경 • 음악부감독/조진학
• 수석트레이너/박옥선

행복나눔 피아노 콘서트

일 시 12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주)아크웨이브라이프 010-4590-5745



지난해 뉴질랜드 St Peter's Lutheran College를 졸업하고 현재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최고연주자 장학생으로 음악수업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사무엘 최는 함께하는 행복나눔 콘서트.
사무엘 최는 어려서부터 다수 호주 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지난해는 Under 18's section Queensland Piano Competition, National Virtuoso Competition 콩쿠르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호주 정부 초청으로 브리즈번과 자매결을 맺은 세계 여러나라 도시에서 연주회를 가진 바 있는 사무엘 최는 이번 무대에서 리스트와 쇼팽, 바흐의 곡을 들려준다.

장정윤과 무용수들

일 시 12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장정윤 200-7822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장정윤의 34번째 현대무용창작공연. 지난 1985년 '공간발레의 밤'으로 첫 개인무대를 가진 후 지속적인 순수현대무용의 창작활동을 가져오고 있는 장정윤은 이번 무대에서 현재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네 명의 무용수들을 중심으로 필립 글래스의 음악을 움직임으로 해석한 '화사드' 등 순수무용작품 두 편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모더니스트modernist, 화사드facade

- 안무/장정윤
- 출연/장정윤, 김평수, 강정윤, 허종원, 정기정, 정혜원, 이효은, 송민지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몸의 수다

일 시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1:00
 5일 수요일 오전 10: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5일 공연은 초대)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8-3121~2



4일 2018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마련하는 무대로, 부산시립무용단의 우수 춤 레퍼토리를 통해 우리 춤의 멋과 신명을 청소년들과 함께 나눈다.

5일 2018 사랑나눔 특별공연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부산시내 특수학교 장애우들을 초청해 함께하는 사랑나눔 송년무대. 부산시립무용단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재철을 비롯한 후원자들이 마련한 선물과 공연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특수학교 학생들이 특별공연 및 레크레이션 무대도 함께 펼쳐진다.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22주년 기념 마술피리 in Concert

일 시 12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R석, S석에 한해 가족 3인 이상 가족 패키지 티켓 구매시 30%, 전화예매시 10%, 10명 이상 단체할인시 20% 할인)
문 의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독일 오스나브뤽 오페라극장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를 맡고 있는 안드레아스 호츠와 국내 정상급 모차르트 전문 오페라 주역 가수들을 초청해 마련하는 그랜드오페라단 '마술피리 in Concert'.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전막에 나오는 아리아와 중창, 합창곡을 음악 중심의 연주회로 선보인다.

- 예술총감독 및 연출/안지환
- 출연/소프라노 한경성, 구민영, 이지은, 김삼희,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미진, 테너 김충희, 이경준, 바리톤 김종표, 베이스 박상진

티밴드블루의 정정렬제 춘향가

일 시 12월 5일 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문 의 전통음악집단 티밴드 블루 010-4591-0214



악가부가 한데 어우러지는 다양한 예술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부산, 영남의 푸른 바다처럼 맑고 시원한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모인 전통음악집단 티밴드(T-Band) 블루의 특별한 무대 '정정렬제 춘향가'. 이번 무대에서는 자진모리 장단에 재즈가락을 얹어 흥겨움을 더한 '광한루 행차'를 시작으로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을 춤으로 표현한 '어화동동 내사랑'. 서 울로 떠나는 몽룡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춘향의 애틋하고 절절한 아픔을 시나위와 살풀이로 풀어낸 '달만큼 보이다가 별만큼 보인다', 이도령과 춘향모의 상봉 대목을 단막극으로 그려낸 '왔구나 우리 사위' 등 '정정렬제 춘향가'를 판소리와 재즈, 기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

2018 송년음악회 DREAM CONCERT

일 시 12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공연기획사 '부산문화'가 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의미를 담아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2018년 무대 'Dream Concert'. '송년모임은 문화공연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정, 팝페라 가수 사란김, 가수 최대호, 박진광, 조덕배가 출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프로그램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오페라 '토스카' 중), 무제타 왈츠(오페라 '라보엠' 중), Joan Of Arc(잔다르크), Oh Holy Night, In My Memory, 달라일라 등 수곡

제6회 부산진구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진구남성합창단 010-5129-4321



부산진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성들로 결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인 부산진구남성합창단의 6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 전국 유일의 구청 소속 남성합창단으로 첫 발을 내딛은 부산진구남성합창단은 그동안 5차례 정기연주회와 부산진구청 주최 '숲속 작은음악회', '10월의 마지막 밤 음악회', 행정안전부 주최 '생명인권존중 토크콘서트', 울산합창경연대회, 부산은행 5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강경원
- 반주/주은정
- 사회/우시홍
- 게스트/소프라노 박현진
- 연주/드림문화 오페라오케스트라
- 합창/부산학원연합회 합창단

이기묘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12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이기묘 010-7551-9339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솔리스트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뉴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기묘 독주회.
어려서부터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 부산신포니에타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이기묘는 현재 경성대학교 연주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중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반주/이진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 - 4.태(態)

일 시 12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우리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위로와 해답을 전하는 '노자와 베토벤' 2018년 마지막 무대. '고주망태(孤酒忘態)'의 마지막 단어인 '태(態)'를 주제로,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우리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해설, 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 악장, KNN방송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해금연주자 나리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 지휘/오충근 해설/최진석
연주/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
협연/양경아(바이올린), 나리(해금)

2018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일 시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현장판매)
문 의 부산일보사 461-4437



부산, 경남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 71명이 들려주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 2018년 무대. 매년 12월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한 무대에 서은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은 그동안 가곡, 오페라합창곡에서부터 성가, 민요에 이르기까지 남성 특유의 웅장한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백석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염진섭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의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합창곡, 종교 합창곡, 창작 합창곡은 물론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가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제5회 예그리나합창단 정기공연

일 시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예그리나합창단 010-9832-7477



합창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어울림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예그리나합창단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2014년 10월 국립합창단이 주관하는 전국골든에이지합창경연대회 부산대표, 2014년과 2015년 부산합창제에 출연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예그리나합창단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전국환경노래경연대회에서 세 차례 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7년 동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의 가곡 및 가요, 팝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 지휘/강종철 반주/이현숙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팝스앙상블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18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마련하는 부산팝스앙상블 송년음악회. 동부산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있는 백원석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팝스앙상블과 아코디언 박상민, 화려한 연주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탁경주 트리오가 매력적인 재즈 연주로 감동의 무대로 선사한다.

- 연주/부산팝스앙상블(예술감독 백원석, 보컬 장재민, 피아노 김혜영, 키보드 서진교, 트럼펫 전경윤, 트롬본 심규성, 기타 진석곤, 베이스 홍경섭, 드럼 홍성윤, 아코디언 박상민), 아코디언 박상민, 탁경주 트리오(기타 탁경주, 피아노 전용준, 베이스 신동하, 게스트 보컬 최소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라클라스 콘서트 'ROMANTICA'

일 시 12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 B석 5만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주)WSM 1566-5490



JTBC의 음악경연 프로그램인 '팬텀싱어' 시즌 2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4인조 팝페라 그룹 '미라클라스' 첫 단독콘서트. 세계적인 바리톤 김주택과 보석 같은 보이스의 뮤지컬 스타 박강현, 건강하고 음색의 스피드 테너 정필립, 크로스오버형 만능베이스 한태인 등 실력파 보컬리스트 4명으로 구성된 미라클라스는 이번 무대에서 데뷔 앨범의 신곡들과 방송을 통해 큰 사랑을 받은 'Feelings', 'Notte' 등 명곡들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김은주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김은주 010-7330-0377



부산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도독, 베를린 국립음대 석사과정 및 동대학원 전문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은주 독주회.

지난 2004년 귀국 후 국내에서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한 김은주는 그동안 수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한국피아노학회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부산국제음악제 프레콘서트, 독우회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기념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국연주회, 드뷔시 서거 100주년 기념 릴레이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일 시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15일 토요일 오후 2:00, 7: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B석 6만6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항일 독립전쟁의 선봉에 섰던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담아낸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

1907년부터 1920년까지, 경술국치 전후의 역사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혼란과 격변의 시대 한복판에서 있었던 인물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을 그린 작품으로,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배우 지창욱과 강하늘, 그룹 인피니트 성규를 비롯해 실력있는 연기자들이 출연,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부산시립극단 제63회 정기공연 부산시립극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III 이(爾)-왕의 남자

일 시 12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영화 '왕의 남자'로 더욱 유명해진 연극 '이(爾)'는 연산군의 눈에 들어 낮은 신분인 천민에서 희락원 종4품이라는 지위까지 오른 역사적 실존인물인 궁중 광대 '공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지난 2000년 초연되어 한국연극협회 올해의 연극상, 희연극계의 굵직한 상을 휩쓴 작품이다.

- 작/김태웅 ● 연출/곽종필
- 출연/염지선, 이혁우, 황창기, 김은희, 배기철, 정마린, 이현주, 오희경, 김은경, 서보기 외
- 특별출연/고인범, 김익현, 박호천, 심상교

부산플루트앙상블 제26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부산플루트앙상블 010-3582-5189



부산 최초의 플루트 전문 실내악단으로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플루트앙상블의 26번째 정기연주회. 올해로 창단 27주년을 맞는 부산플루트앙상블은 리더인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박찬엽을 비롯해 장극태, 정옥경, 조진학, 이진향, 김하나, 장정림 등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는 정상급 플루티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플루트 선율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 특별출연/이호영(더블베이스)

김희정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풍부한 음악성과 관객을 사로잡는 대범한 연주로 호평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독,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석사과정, 예센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희정은 2007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독주회를 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교향악단과의 수차례 초청협연을 통해 솔리스트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희정은 충남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카메라타 부산 악장 및 객원악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김해옥 010-3859-9822



신라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빈 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해옥 독주회. 그동안 6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일본에서의 2인음악회 등 국내외 다수 무대에 서은 김해옥은 현재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경성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악흥의 순간 작품 94 D. 870
 드뷔시/영상 1집
 스크랴빈/불꽃을 향하여 작품 7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9회 정기연주회
Adieu 2018 Rhapsody&Dance

일 시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며 우리 귀에 친숙한 랩소디와 춤곡, 오페라 아리아로 송년의 흥겨움을 선사해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송년무대. 수석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악장이자 부산클래시컬뮤직...

- 지휘/김봉미(수석지휘자)

2018 제3회 사랑나눔음악회
눈부신 하루

일 시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문 의 부산 어깨동무 나눔봉사단 010-3513-7156,
www.eodongnanum.co.kr



발달장애 청년들의 예술적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무대 '눈부신 하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최하고 부산 어깨동무 나눔봉사단이 주관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훈련생 26명이 무대에 올라 연주와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발달장애 청년들이 자립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 특히 훈련생들이 직접 만든 공예작품은 경매 이벤트를 통해 그들의 이름으로 복지아동센터 등에 기부된다.

오페라단 나눔 창단연주회
오페라 콘서트

일 시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5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학생 2만원
문 의 오페라단 나눔 611-0132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 대중화를 위해 창단한 오페라단 나눔의 창단무대 '오페라 콘서트'.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푸치니의 '라 보엠' 등 세 편의 오페라 작품을 통해 아름답게 사랑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세 여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 단장/최흥근 • 예술감독, 지휘/이철성
• 연주/UM 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센텀오페라합창단
• 출연/박현진, 장지현, 손혜은, 한우인, 박순기, 안세범, 왕기현, 양승엽, 김미정, 허동권, 박나래, 고영호, 유용준, 박상진

송승환의 오리지널 난타
-부산공연

일 시 12월 20일(목)-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7:00, 23일(일) 오후 2:00, 6:00, 24일(월) 오후 7:30, 25일(화)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S석 4만원
문 의 (주)피엑스프리퍼덕션 1577-7627



2018년 국내 공연계 최초로 누적관객수 1,300만명을 달성한 세계적인 난타 퍼포먼스 '난타' 부산공연. 1997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57개국 308개 도시에서 강렬한 비트와 풍성한 사운드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난타'는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무대, 실력파 배우들의 흡입력 있는 퍼포먼스로 관객과 배우가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6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73회 정기연주회
2018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며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2018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올해는 완벽을 향한 열정과 진지함,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사랑받고 있는 지휘자 임헌정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양제경,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조중혁, 바리톤 허종훈이 솔리스트로 출연, '합창'의 감동을 전해준다.

- 지휘/임헌정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차미령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차미령 010-5729-9949)



미국 맨해튼 음대 학사(BM) 및 석사(MM), 뉴저지 주립음대(Rutgers) 연주학 박사(DMA)를 취득하고 현재 예원회, 부산음악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차미령 독주회. Bradshaw&Buono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차미령은 그동안 미국에서 수차례 독주회 및 실내악연주회, 마스터클래스 등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귀국 후에는 독주회를 비롯해 서울필하모닉과의 협연, 렉처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의 기억'이라는 부제로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의 곡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컬러스(COLORS)’

일 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
 2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
 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18년 저물어가는 한해의 아쉬움을 ‘천상의 하모니’로 날려줄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JTBC ‘팬텀싱어’의 초대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Forte di Quattro)는 뮤지컬과 성악을 넘나드는 리더 고훈정, 파워풀한 명품 테너 김현수, 여심을 사로잡는 음색의 베이스 손태진, 독학파 감성 테너 이버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송년무대에서는 미니앨범 ‘컬러스(COLORS)’의 6개 곡을 중심으로 따스한 음색과 깊은 울림을 품은 포르테 디 콰트로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3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Concert

일 시 12월 25일 화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크리스마스날 전사하는 즐거운 음악선물 ‘해피 크리스마스 콘서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바리톤 양태갑의 특별출연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고전적 악풍과 대중적 효과를 잘 조화시킨 역작으로 크리스마스 와 어울리는 화려한 영광의 분위기를 잘 그려낸 존 루터의 ‘글로리아’를 들려준다.
 1991년에 창단된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이후 400여회의 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특히 윤이상 탄생 100주년 통영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에서 곡 해석력과 기량 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플루트앙상블
‘비엔토(Viento)’ 창단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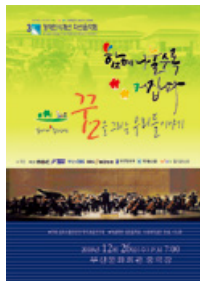
일 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플루트앙상블 비엔토 010-4065-3451

플루티스트 김동욱, 김민정, 길명훈, 유주영, 김혜미, 장예지, 김성식 등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플루트앙상블 ‘비엔토’ 창단연주회.
 플루트의 저변확대와 창의적인 문화를 이끌어 가고자 창단한 플루트앙상블 ‘비엔토’는 앞으로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 2세/‘박쥐’ 서곡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린스키 코르사코프/세헤라자데 등 수곡

제3회 ‘장애인식개선 Storytelling’
자선음악회
꿈을 그리는 우리들 이야기

일 시 12월 26일 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 의 길따라좋은인연 744-4780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길따라좋은인연봉사단/뮤직포럼연구회가 마련한 무대.
 길따라좋은인연봉사단/뮤직포럼연구회는 지난 1989년 11월, 전국 각 시도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교사 및 원장, 일반인 등 6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자원 봉사단체로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타를 발굴해오고 있다.
 남구구립로독여성합창단 난타팀, 크로마하프 합주단, 동향중학교 오케스트라, 아마빌레 색소폰동호회의 연주와 시나레가 펼치는 장애우를 위한 시극, 그리고 장애우들의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 내한공연
호두까기인형

일 시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러시아 클래식 발레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러시아 최고의 무용수로 구성된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 내한공연 ‘호두까기인형’.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호두까기인형’은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환상적인 안무가 돋보이는 발레작품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겨울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 2005년 모스크바에서 창단된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은 그동안 탁월한 기량과 세련된 안무기법으로 러시아 고전발레의 전통과 가치를 되살리고 있다.
 ● 예술감독/에프게니야 베스파로바

엔젤피스 예술단 송년평화콘서트

일 시 12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무료(홈페이지 신청 후 선착순 좌석권 배정)
문 의 엔젤피스 예술단 557-1088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민간 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가 후원하는 엔젤피스 예술단이 2018년 송년의 아쉬움을 담아 마련하는 송년평화콘서트.
 2016년 7월 창단연주회를 통해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은 엔젤피스 예술단은 부산지역 일선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발된, 예술적 끼와 재능이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 분야별 전문 감독과 트레이너로부터 다양한 예술교육을 전수받고 있다.
 그동안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홍보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엔젤피스 예술단은 이번 무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단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구름에 달가듯이 & 한국의 소리와 두드림'

일 시 12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신명 넘치는 우리음악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_구름에 달가듯이 & 한국의 소리와 두드림'.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있는 정영진이 사회를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있는 김점순, 김보연, 이소정,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 김병오,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이수자 강권순,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이수자 유채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이수자 김용호, 제2회

박동진 명창, 명고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수상자 박천음, 전북도립국악예술단 창극단 부수석 박영순, 타악연주자 장재효, 색소포니스트 전성현,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멋과 신명이 넘치는 전통소리와 타악연주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민영치/관현악 '세줄'(여민락을 위한 Bolero)
이준호/우리바나리
이정호/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한'
김선제(편곡)/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룡도'
남해안 별신굿 구음과 국악관현악 '가랑곳(수부시나위)'
이정호/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
장재효/국악관현악을 위한 장구협주곡 '아홉(A-HOPE)'
● 지휘/이정필 ● 사회/정영진



창작오페라 '백산 안희제'

일 시 12월 29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시 30% 할인)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0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기업가이며 교육가, 언론인의 삶을 살았던 백산 안희제의 삶을 그린 창작오페라 '백산 안희제'.

지난 2011년 초연무대를 통해 호평을 받은 '백산 안희제'는 부산의 역사적 인물인 백산 안희제를 부산 지역 오페라단이 작품으로 선보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작곡/박철홍 ● 대본/김지숙
- 연출/정경환 ● 지휘/박종휘
- 출연/양승엽, 임성규, 성미진, 한정현, 고영호, 조성빈, 김태형, 강귀량, 김보우
- 연주/아지무스챔버오케스트라
- 합창/벨칸토오페라합창단

아지무스오페라단 송년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12월 30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0



지난 2002년 창단된 후 부산지역 오페라 발전과 오페라 관객의 저변확대에 힘쓴 전문예술법인 아지무스오페라단이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며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 소프라노/김혜경, 양근화, 설은경
- 테너/박호승, 강학운, 김성록, 허동권, 양승엽
- 바리톤/한정현, 심정보
- 베이스/양재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제야음악회

일 시 12월 31일 일요일 오후 10: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부산문화회관 2018년 제야음악회.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마련되는 이번 2018 제야음악회에서는 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피아니스트 조재혁,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뮤지컬배우 양준모가 출연, 2018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 서곡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2, 3악장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3악장 등 수록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010-6440-6078



음악을 사랑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0년 10월 창단한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재능나눔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해왔다.

2018년 마지막 날에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등 클래식 명곡을 통해 가는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기쁨을 관객들과 함께 나눈다.

- 지휘/정우영

2018 The 최현우 'ASK ? & answer !'-부산

일 시 12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일 일요일 오후 1:00,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문 의 (주)오름기획 1599-9354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No.1 마술사 최현우의 2018 매직쇼. 국내 최초 마술사 이흥선의 1호 제자로 국내 마술계의 계보를 잇는 대표 스타 마술사인 최현우는 국제마술대회 아시아인 최초 수상자이자 세계마술 올림픽 FISM의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주목받았다.

국내 최대 공연물(147개)로 국내외 1,500회 이상 공연, 90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매년 새로운 시도로 마술의 패러다임을 이끌어온 최현우는 이번 무대에서 대규모 세트와 무대 전면을 활용한 영상맵, 그리고 최고의 마술이 모두 갖춰진 역대급 초대형 스케일의 그랜드 일루전 마술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18 어린이 울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호비아! 챌린지 꿈나무를 구해줘!

일 시 12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원
문 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더욱 화려해진 불거리와 탄탄한 스토리로 만나는 어린이 울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지난 2010년 시즌 1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호비쇼는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뮤지컬로 재미는 물론 인성, 사회성, 생활습관 등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호비아! 챌린지 꿈나무를 구해줘!'는 얼음숲에 갇힌 숲의 여왕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호비와 친구들의 이야기로, 과연 호비와 친구들은 다양한 도형 미션을 통과하고 숲의 여왕님을 구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한 내용이 펼쳐진다.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일 시 12월 7일-9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인터파크 예매시 1만3천원)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린이 관객과 만나는 신나는 캐롤이 함께하는 성탄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우리에게 친숙한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 실수투성이 루돌프의 유쾌한 인간 세상 모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깨닫게 해주는 '루돌프와 산타클로스'는 뮤지컬 전문 연기자들이 펼치는 완성도 높은 노래와 연기, 멋있는 요정의 마술쇼,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등 화려한 무대장치로 관객들을 꿈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호비아! 챌린지 꿈나무를 구해줘!'는 얼음숲에 갇힌 숲의 여왕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호비와 친구들의 이야기로, 과연 호비와 친구들은 다양한 도형 미션을 통과하고 숲의 여왕님을 구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한 내용이 펼쳐진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 시 12월 11일-12일 화-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4만4천원, B석 2만2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단체 30% 이상 40% 할인)
문 의 예술기획 010-4909-7444



러시아 황실 발레의 전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발레단으로 마린스키, 미하일로프스키와 더불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고전 발레단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지난 1990년 마린스키(구 키로프) 발레단의 단원으로 활동했던 알렉산더 브루스킨이 창설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발레단은 단원 모두가 1738년 설립된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 졸업생들로 마린스키 발레단의 모든 안무와 테크닉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발레의 정통성을 엄격히 추구하는 고전

발레단으로 명성이 높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발레단은 창단 이후 일본,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터키를 비롯한 세계 30여개국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가져왔으며, 세계적인 발레 페스티벌에 정기적으로 초청받는 등 러시아 고전발레를 대표하는 발레단으로 세계 무대에 서고 있다.

- 단장/루드밀라 브라기나
● 안무/알렉산드르 마노슈킨
● 지휘/티무르 가르코베크
● 연주/대극국제오페라오케스트라
● 출연/안나 보이티나, 마리아 벨리카야, 알렉산더 보이틴, 세르게이 코노넨코, 크세니아 오누치나, 세르게이 라레틴 외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송년특별 기획공연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

일 시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펼쳐지는 캐롤과 재즈의 만남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

2001년 첫 공연을 가진 후 올해로 18회째를 맞으며 단일브랜드 공연으로서는 최장기 공연기록을 수립한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는 매우 시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랜튼과 차분하면서도 단박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색소포니스트 마틴 제이콥슨, 섬세하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드러머 매뉴엘 웨이언드, 몽환적 사운드를 연출하는 베이스리스트 손 펜들랜드가 세계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우리나라 동요를 재즈 선율에 담아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뮤지컬 ‘공룡메카드 어드벤처 월드’

일 시 12월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1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4만5천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 1577-5868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 블록버스터 어린이 뮤지컬 ‘공룡메카드 어드벤처 월드’ 앵글무대. 어린이들에게 공룡덕후 입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공룡메카드’를 뮤지컬로 제작한 ‘공룡메카드 어드벤처 월드’는 국내외 공룡 전문가들이 손수 만든 타이니소어는 물론 길이 5M에 육박하는 초대형 공룡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손길로 탄생된 애니메이션 속 인기 공룡들이 무대에 다채롭게 등장, 귀여운 타이니소어들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와 함께 공룡들의 박진감 넘치는 배틀 액션이 펼쳐진다.

2018 크리스마스 특집 수리수리매직쇼

일 시 12월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화려한 마술과 신기한 버블, 신나는 벌룬쇼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수리수리매직쇼’. 뼈에 아저씨가 직접 만들어주는 다양한 풍선 선물로 시작하는 화려한 풍선아트 오프닝쇼에 이어 다양하고 멋진 마술들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매직쇼, 아티스트의 손버블부터 여러 도구와 스모그를 이용한 화이트버블, 큰 비눗방울 속에 직접 들어가보는 대형버블, 그리고 객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버블파티까지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환상의 무대가 펼쳐진다.

남산놀이마당 기획공연 영남의 소리와 몸짓-파방굿

일 시 12월 16일 일요일 오후 4:00, 7:00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남산놀이마당 516-4434



2018 지역문화예술특성 화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의 기획공연. 남산놀이마당이 지난 20년간 부산에서 뿌리내리고 축적하며 쌓아온 삶과 예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엮어낸 ‘파방굿’은 전문예인집단인 ‘솨대쟁이패’의 신명과 흥이 모두 녹아났던 풍물놀이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했었던 부분으로, 길군악이라는 경상도 특유의 힘이 느껴지는 가락과 그에 맞는 진의 형식을 빌려와 흥겨운 놀이판을 선사한다. ‘파방(罷榜)’이란 있었던 일을 다시 없던 일로 하는 것. 파방을 통해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자는 의미로 제작된 작품으로 지난 2006년 부산문화회관에서 초연된 바 있다.

컬투 정찬우가 만든 화제의 락뮤지컬 프리즌

일 시 12월 20일-21일 목-금요일 오후 8:00, 22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3일 일요일 오후 2:00, 5:00, 24일 월요일 오후 5:00, 8:00, 25일 화요일 오후 2:00, 5: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5만원
문의 이퀄림부산 1644-5764



인기개그듀오 컬투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통해 파격적인 연출과 구성, 웃음코드로 제작한 뮤지컬 ‘프리즌’. 가수를 꿈꾸는 탈옥범들의 요절복통 스토리를 담은 ‘프리즌’은 철저히 준비된 웃음과 자연스러운 애드립에 콘서트와 퍼포먼스, 비보잉, 마술, 개그 등 다채로운 장르가 결합되어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프리즌’은 관객이 관객을 웃긴다는 호평과 함께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뮤지컬로 자리매김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수일밴드 ‘황홀한 콘서트’

일 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7만7천원,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부산일보사 461-4437~8



세대를 초월하는 싱어송라이터 윤수일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슴 벅찬 무대 ‘황홀한 콘서트’. 크리스마스 와 송년을 맞아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이라는 부제가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데뷔곡 ‘사랑만은 앓겠어요’를 비롯해 국민 응원가로 사랑받고 있는 ‘아파트’, ‘황홀한 고백’, ‘제2의 고향’, ‘아름다워’, ‘터미널’, ‘토요일밤’, ‘술바다 섬마을’ 등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불후의 명곡 퍼레이드와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 및 팝 명곡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부산시민회관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지난 한 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시민들과 소통해온 부산시민회관이 2018년을 보내며 아쉬움을 담아 마련한 ‘2018 송년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부활 역대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최근에는 뮤지컬배우로도 큰 사랑을 받고있는 가수 정동하와 국내외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출신의 팝페라 듀오 ‘휴(HUE:休)’,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재즈 콰텟 ‘4nowquartet’가 출연, 재즈에서부터 크로스오버, 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전 좌석 관람료를 1천원으로 책정, ‘천원의 행복’으로 진행된다.

기타공연장

2018 하모니색소폰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1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하모니색소폰오케스트라 010-3598-4704



순수 아마추어 색포니스트 35명으로 구성된 하모니색소폰오케스트라의 5번째 정기연주회.

하모니색소폰오케스트라는 지난 2012년 금정구청이 후원하는 서동예술인 창작공간 상주단체로 출발, 그동안 4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시민을 위한 야외음악회, 광안리 해변음악회, 제21회 가장갯마을축제, 금정온천천 작은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지휘/이상훈 ● 객원지휘/진영희
- 소프라노/이민희 ● 색소폰/고수근
- 초대가수/민희

더 솔로리스트 카메라타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1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3천원

문의 더 솔로리스트 카메라타 010-8593-3045



지난 2016년 부산, 경남지역의 아마추어 클래식 연주자들로 창단된 (사)더솔로리스트 카메라타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클래식에 대한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결성된 (더)솔로리스트 카메라타는 전문연주자들이 직접 지도하는 파트연습, 합주연습을 통해 실력 있는 아마추어 연주단체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 이번 무대의 공연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된다.
- 지휘/정성훈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이혜진, 김태은, 천재경, 김연희, 이은현, 최진, 첼리스트 오민성

유혜진&서영교 듀오 리사이틀 클래식 색소폰과 피아노가 함께하는 센티멘탈 하모니

일 시 12월 2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서영교 010-6886-5896



아름답고 섬세한 감성을 가진 피아니스트 유혜진과 클래식 색소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색소포니스트 서영교의 듀오 무대.

부산반주연구회, 울산피아노아카데미 멤버로 있는 유혜진은 프랑스 뽀와시 음악원, 베르사이유 국립음악원, 쟈느빌리에 음악원, 말메종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올해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영교는 프랑스 안시국립음악원, 리옹시립음악원, 안시시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받았으며, 안시관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독주회 및 협연, 앙상블까지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퓨전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Emotion+ 동서양의 감수성

일 시 12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퓨전앙상블 010-9343-5678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을 리더로, 클래식과 국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색다른 앙상블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퓨전앙상블의 5번째 정기연주회.

개인 연주자의 뛰어난 음악해석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악기를 잘 조화시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결성한 퓨전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Emotion+ 동서양의 감수성'라는 부제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연주/이명일(가야금), 강은미(판소리), 최유리(해금), 이효빈(장구), 백재진(바이올린), 박종관(오보에), 구민영(소프라노), 서혜리(피아노)

2018 을숙도 해피콘서트

일 시 12월 4일-7일 화-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연주자와 관객이 음악을 통해 함께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겨울밤 음악 이야기' 을숙도 해피콘서트.

안정된 연주력을 바탕으로 호소력 있는 연주로 관객과 만나는 무지카비바 앙상블의 실내악 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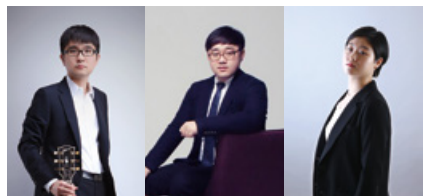
- 4일(화)** 무지카비바 앙상블 '삶, To you'
- 5일(수)** 3테너 앙상블 클라보체 '송년을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 6일(목)**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기념 사랑의 갈라콘서트
- 7일(금)** 황현속트리오 '회상'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탁경주 트리오 '크리스마스 재즈'

일 시 12월 6일 목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3만원(예매시 10% 할인, 단체 10인 이상 2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 전임교수로 있는 기타리스트 탁경주를 중심으로 베이시스트 강성민, 보컬리스트 최소진으로 구성된 탁경주 트리오의 무대.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재즈 연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한다.

기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26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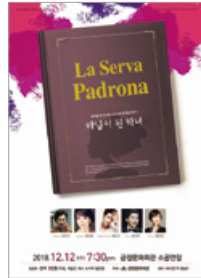


5일 IF 플루트앙상블 'IF Only'

2012년 8월,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오신정 교수와 플루트 전공 재학생, 졸업생들로 결성된 후 그동안 부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연주활동을 펼쳐온 IF 플루트앙상블의 무대.

IF 플루트앙상블은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의 많은 플루트 컨벤션과 콘서트에 초청받아 한국을 대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올랜도에서 열린 2018 NFA(National flute association)에서 놀라운 연주실력으로 현지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음악감독 겸 리더/오신정



12일 앙상블 유니언의 첫 번째 이야기 '마님이 된 하녀'

작곡가 페르골레시의 2막 짜리 막간극으로 오페라 부파의 효시가 된 오페라 '마님이 된 하녀'.

영리한 하녀 세르피나가 돈 많은 노인 우베르토를 농락하여 결국 그 노인의 마음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 속에 예리한 풍자와 웃음을 담은 작품으로, 바리톤 윤오건과 소프라노 양라운, 바리톤 최상규, 테너 정민혁이 출연, 유쾌한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정은정

19일 합창지휘자들이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성악가, 작곡가 또는 피아니스트 중 합창지휘자라도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로 결성된 부산지휘자합창단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련하는 특별한 음악선물.

- 지휘/김강규 ● 반주/백현주
- 소프라노/강소영, 김혜진, 이원경, 이은희, 이지원, 최현숙
- 알토/김미라, 김혜진, 심차영, 윤지영, 최인숙
- 테너/김성배, 이건륜, 이성화
- 베이스/박상진, 박찬, 채범석

2018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10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총 631-1377



7일에는 부산국악협회 회원들과 국악밴드 헤아림의 창작관현악곡과 민요연곡에 이어 테너 최춘식이 우리 귀에 친숙한 'You raise me up'을, 국악밴드 헤아림과 색소포니스트 최민호가 'Silver Bells, Green Sleeves, Let's Twist Again'을 들려준다.

10일에는 오카리나 독주를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고민주, 이재은, 박유리, 손유진의 피아노 듀오, 소프라노 정혜리, 테너 양승엽, 남성중창단 퍼스트클래스, 남성중창단 호연앙상블의 오페라 아리아와 캐럴 모음곡,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첼리스트 김동환, 피아니스트 유영욱의 실내악 앙상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홍법 개산 15주년 기념음악회 홍법 칸타타

일 시 12월 9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홍법사 문화관 508-0345



수행과 교육 그리고 문화의 전방도량으로 활동해 온 홍법사 개산 15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홍법 칸타타'는 전통적인 칸타타와는 달리 홍법사의 시작과 포교 원력을 담은 칸타타로, 이번 무대에서는 니르바나오케스트라(지휘/이상철)가 연주하고 홍법사에서 활동하는 불광합창단(지휘/최성혁)을 비롯해 청솔합창단(지휘/이연화), 칸따모레합창단(지휘/이상철), 세향합창단(지휘/이지운), 동림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지운) 등 160여명의 합창단원들이 출연, 장엄한 무대를 선사한다.

제3회 CTS부산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CTS부산방송 소년소녀합창단 010-2640-2739



찬양과 합창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CTS부산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2년 창단한 CTS 부산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2015년 미국 카네기홀 연주 및 미동부 순회연주, CTS권사합창단 정기연주회 초청연주, 2017 부산청소년 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제2회 전국CTS여름음악캠프 대상, 제4회 전국CTS여름음악캠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지휘/김민지 ● 반주/박지환
- 게스트/포에마 앙상블, 서혜은(바이올린), 변은석(첼로), 유지훈(클라리넷)

선샤인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9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선샤인 오케스트라 010-5660-3919



음악을 사랑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음악으로 소통하며 행복과 보람을 찾는 아마추어오케스트라인 선샤인 오케스트라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추억의 영화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원준연의 지휘로 록키, 타이타닉, 라라랜드, 태극기 휘날리며, 시네마천국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OST로 저물어가는 2018년을 되돌아보며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제67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국 연주시리즈 III 말러, 교향곡의 새 시대를 열다

일 시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2018년 말러 교향곡 전국 연주시리즈로 마련된 제 67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회관으로서 첫 도전으로 큰 화제를 모은 을숙도문화회관의 '말러 교향곡 전국 연주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말러 자신의 인생전환기를 담은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보르딘/오페라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인의 댄스'
말러/교향곡 제5번 올림파단조
● 예술감독/김원명 ● 지휘/백진현
● 연주/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The Blossom 열 번째 이야기 Our Best Days

일 시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The Blossom 010-82725306



부산예고 동문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하정,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안은지,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로 구성된 The Blossom의 앙상블 무대.

The Blossom은 '연주자가 각자 자신의 기량을 꽃피워 번성하자'는 의미로 지난 2014년 창단한 후 매년 2차례 정기연주회와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연주했던 곡들 중 청중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을 묶어 들려준다.

벨리씨미와 함께하는 한국가곡의 밤 사랑

일 시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벨리씨미 010-8277-4746



부산에서 활동하는 여성 성악가의 모임으로, 매년 따뜻한 테마와 주제로 무대를 열어온 벨리씨미와 함께하는 한국가곡의 밤. 이태리어로 '멋있는', '아름다운'을 뜻하는 벨리씨미는 이번 무대에서 송년을 맞아 '사랑'이라는 테마로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을 선곡, 여성 성악가들의 삶에 녹아 있는 음악적 열정과 서로간의 신뢰를 담아 훈훈한 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이은미, 이나연, 장은영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성미진
- 피아노/김찬이

제6회 허회성의 가야금 절세가현(節世佳絃)

일 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허회성 010-8951-5002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 영남대학교 음악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 활동을 펼쳐온 가야금주자 허회성의 무대. 제11회 전국가야금대회(고령) 일반부 은상, 제15회 부산국악대전 기악부문 장원을 수상한 허회성은

영남가야금앙상블 단원, 부산예술중학교, 영남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강사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대금/이중희 ● 장구/장주영
- 사회/김현경

2018 송년콘서트

일 시 12월 14일(금), 21일(금) 오후 7:00 성원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6천원
문의 성원아트홀 1899-5435



지난 9월, 문화공간이 부족한 서부산지역 명지 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성원아트홀 2018년 송년음악회.

14일 성악과 브라스밴드 '오페라와 팝&캐럴'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후 브라스가 크리스마스 캐럴과 팝송을 들려준다.

21일 Blue Wave와 함께 하는 추억 속으로

보컬이자 키보드리스트 양우석과 기타리스트 겸 보컬 최환선, 리드 보컬 김지륜으로 구성된 Blue Wave와 함께 추억 속 음악여행을 떠난다.

글로벌아트홀 개관 13주년 기념 창작작품 페스티벌 글로벌의 크레센도 Crescendo of GloVil

일 시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VIP 5만원,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음향을 자랑하는 글로벌아트홀이 개관 13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글로벌의 크레센도'.

글로벌아트홀 예술총감독이자 작곡가인 신영순이 작곡과 지휘를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오보이스트 조정현,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첼리스트 이일세, 성악가 조은득, 이리진 등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비파야 수금야, 오라, 복있는 사람, 피아노 트리오 어 화동동,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시 등 성악과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대 향연

- 작곡, 지휘/신영순

기타공연장

해운대문화회관 2018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저물어가는 2018년 한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2019년 새로운 해를 맞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해운대문화회관이 마련한 2018년 송년음악회. 소프라노 김아름,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김지호, 바리톤 박대용, 피아니스트 김효성, 가수 위일창, 공민수, 뮤지컬배우 박정우, 김은미, 신새봄과 해운대그림소년소녀합창단(지휘/권영기, 피아노/조미영)이 출연, 송구영신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사회/김정아

연극 | Play

연극 수상한 흥신소 3탄

일 시 9월 20일(목)-2019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 3탄'. 지난 2011년 초연되어 많은 호평을 받았던 연극 '작전! 임이라 지우기(웨딩브레이커)'의 리뉴얼 버전인 '수상한 흥신소 3탄'은 자신의 탄생을 막기 위해 과거로 온 17세 소녀 임이랑이 벌이는 요절복통 엄마, 아빠의 연애 휘방 대작전을 그린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극으로, 그동안 탄탄한 스토리와 믿고보는 배우들의 연기로 누적관객 50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2018 부산뮤지컬단 기획공연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일 시 12월 30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부산뮤지컬단 070-4131-3000



창작 뮤지컬 제작과 부산의 신진 예술가 발굴을 위해 창단한 부산뮤지컬단의 2018년 기획공연. 악극 '홍도야 울지마라'를 부산뮤지컬단이 새롭게 재해석한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개그맨 김대범의 진행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페임', '드림걸즈' 등 유명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 연출/구현욱 • 지휘/장병혁
• 출연/김대범(개그맨), 박진수(탈런트), 김민준, 김달의, 이경희, 강호근, 오선미, 차유림, 홍혜진, 구나영, 하선아, 김은비, 채수지, 김지현, 뮤지컬조아래, 남성초 초록별합창단
• 연주/유나이티드 파스오케스트라

연극 론더풀 투나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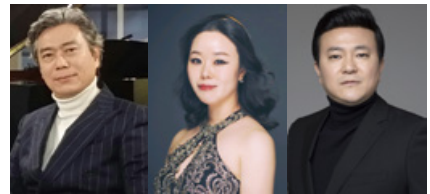
일 시 7월 28일(토)-12월 30일(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5:00(월-목요일 공연없음) 무대공감소극장 at 쎄스톤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동네 어귀에 자리한 이름 없는 허름한 술집을 배경으로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게 펼쳐지는 연극 '론더풀 투나잇'. 추억 속 옛날 음악이 흐르고 왓슨 눈치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이 술집에는 은퇴한 아버지 '댄서리'와 허풍쟁이 '구프로', 육아에 지친 '왕언니', 만년취업준비생 '반거지', 365일 다이어트하는 '선배누나',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누가 봐도 '결혼 못하는 남자' 등 외롭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간다. 그들의 외로움과 시름은 이곳의 맥주와 소주 한잔에 풀리는데...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40회 프롬나드 콘서트 'See You Again'

일 시 12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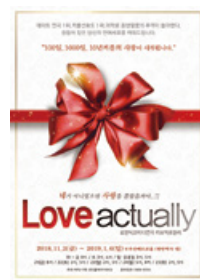


부산상공회의소 역사관인 부산챔버스퀘어 탄생과 함께 기업과 예술이 만나 시민들과 소통하며 매월 마련해온 프롬나드 콘서트 'See You Again' 지난 2014년 10월 첫 무대를 시작으로 지난 4년간 시민들과 함께해온 프롬나드 콘서트 마지막 무대로, 첫회부터 지금까지 디렉팅해온 오충근 예술감독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현진, 테너 전병호가 따뜻한 겨울 음악선물로 고별인사를 전한다.

- 지휘/오충근
• 협연/소프라노 박현진, 테너 전병호

로맨틱코미디극 러브액츄얼리

일 시 11월 2일(금)-2019년 1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러브액츄얼리'. 잠들어있던 관객들의 연애세포를 깨워주는 이번 작품은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는 따끈따끈 연애 100일차 커플부터 만나면 투닥거리기 바쁜, 슬슬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차 커플, 가족인지 애인인지 헷갈리는 10년차 커플까지 세 커플의 리얼 로맨스를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일 시 11월 24일(토)-12월 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2:00 (월요일 공연없음)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의 (주)뉴컨텐츠컴퍼니 950-6500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 묵직한 메시지로 관객들의 찬사와 환호를 받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부산무대.

1818년 출간된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생명의 본질을 그린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이번 무대에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성공 신화를 이끌어낸 전동석, 안시하, 이희정, 김대중을 필두로 민우혁, 카이, 박민성, 박혜나 등 새로운 캐스트들이 합류하며 다시 한 번 전율의 무대를 선사한다.

무용 | Dance

국립부산국악원 목요명무 정향(井香) 서정숙의 춤 ‘귀연(貴緣)’

일 시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현재 부산시립무용단 훈련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서정숙의 무대. 신라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연예술과에 재학중인 서정숙은 그동안 두차례 개인출판과 창작무용 ‘생의 두 갈래’, ‘비천’, ‘인어의 숲’, ‘그네’ 등 창작무용을 선보인 바 있다.

부산 춤의 역사이자 시아버지인 명무 김진홍 선생과 그의 남편이자 동래한량춤 이수자인 김갑용, 부산시립무용단을 통해 인연을 맺은 홍기태 전 수석안무자, 김용철 현 예술감독 등 귀한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은 네 사람과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극단 자유바다 영도다리占바치

일 시 12월 4일(화)-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전석 2만5천원(예매시 1만5천원)
문의 극단 자유바다 010-3577-3092



영도다리 아래에는 피난 시절부터 점집들이 밀집되어 잃어버린 가족들의 생사를 묻는 사람들이 단골로 오곤 했다. 박도사는 그곳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주역쟁이다. 30여년 전 스승 장도사 밑에서 주역 공부에 매진하던 박도사는 스승인 장도사와 충돌하고 운명을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박도사와 모든 것은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장도사의 갈등은 심해지는데...

부산을 스토리텔링한 연극 ‘영도다리 占바치’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각자 다른 태도로 맞서는 박도사와 그의 스승 장도사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부산발레시어터 ‘호두까기인형’

일 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7:30, 23일 일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11월 30일까지 조기 예매시 20% 할인)
문의 부산발레시어터 513-7779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발레시어터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지난 2014년 발레의 대중화를 목표로 창단한 부산발레시어터는 클래식 발레는 물론 창작발레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호두까기인형’은 ‘클래식 발레는 지루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바꾸기 위해 기획된 부산발레시어터의 ‘친절한 발레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로,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 속에 신기한 마술쇼와 화려한 비보잉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극단 새벽 단막극 레퍼토리 모음

일 시 12월 6일(목)-22일(토)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없음) 호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5천원(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세상에 대한 풍자와 역설, 은유가 담긴 4편의 단막극을 선보이는 ‘단막극 레퍼토리 모음’.

국가권력의 폭력적 면모를 풍자적으로 그려낸 ‘아닌 밤중에(작/이성민, 출연/변현주, 이현식, 정선욱)’를 비롯해 ‘다리 위에서(작/서현철, 출연/이현식, 정범진)’, ‘회사 생활(작/정선욱, 출연/변현주, 정선욱, 오옥진)’, ‘비오는 날의 선물(작/이성민, 출연/변현주, 이현식, 정범진, 정선욱/오옥진)’ 등 4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콘서트 | Concert

센트럴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동행 음악회

일 시 12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3만원, 2층 1만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지난 2005년 대중음악, 방송음악에서 활동하던 연주인들이 모여 창단한 센트럴팝스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스탠다드 재즈와 팝, 가요, 민요 등 친숙한 곡들을 재즈기법의 편곡으로 연주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KBS 콘서트 7080, 열린음악회 등에 출연하여 7080 세대의 감성을 노래한 가수 박강성, MBC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등에 출연하여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했던 가수 신효범, 그리고 수많은 히트곡의 주인공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최성수가 출연, 관객과 소통하며 행복한 무대를 선사한다.

기타공연장

김완선 콘서트

일 시 12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9일 일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VIP석 11만원, R석 9만9천원
문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알리&민우혁의 특별한 하루

일 시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5만원, 2층 4만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2018년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며 마련하는 연말 대중콘서트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폭발적인 가창력의 주인공 가수 알리와 뮤지컬배우 민우혁이 함께하는 '알리&민우혁의 특별한 하루'.

해운대문화회관 2018 송년콘서트
 추가열밴드 콘서트

일 시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god 20th Anniversary Concert
 'GREATEST' -부산

일 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 벅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스탠딩·VIP석 14만3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11만원, B석 9만9천원
문의 (주)WSM 1566-5490

에일리 단독 콘서트
 'I AM : AILEE' -부산

일 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A석 8만8천원
문의 (주)WSM 1566-5490

로이킴 콘서트 -부산

일 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KBS 부산홀
입장료 전석 11만원
문의 (주)WSM 1566-5490

다이나믹듀오 단독 콘서트
 'DDDD' -부산

일 시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8: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전석 11만원
문의 (주)WSM 1566-5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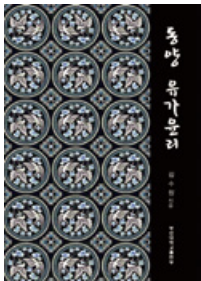
케이윌 전국투어 콘서트
 'THE K.WILL' -부산

일 시 12월 30일 일요일 오후 6:00, 31일 월요일 오후 8:00 KBS 부산홀
입장료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문의 (주)WSM 1566-5490

행사 | Event

시네바움 · 아트홀바움
 11월 아카데미

일 시 3일(월)-4일(화), 10일(월)-11일(화), 17일(월)-18일(화) 오후 7:30 시네바움 · 아트홀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시네바움 · 아트홀바움 010-2774-3455



3일(월) 일본의 미학(13) 세속을 거부한 신비주의 유경(幽玄)미학의 탄생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4일(화) 호메로스 읽기(1)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가 '일리아스'를 낳고... 변형된 신화 속의 '인

성'(Humanities)

• 강사/김해룡(영문학박사, 전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외래교수)

10일(월) 정악. 그리고 제레악의 세계

• 강사/정은경(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11일(화) 윤산의 고전읽기(5) 주자철학 이것이다(1)

• 강사/김수청(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17일(월) 박기철 교수의 이야기 콘서트(4) 서양음악사 흐름 속에서 퀸과 머큐리

• 강사/박기철(경성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8일(월) 심진호 교수의 예술기행(14) 영화, 퍼(Fur)를 통해본 아웃사이더들의 사진작가 다 이엔 아버스의 삶과 예술

•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교수)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11일(화) 오후 7:30, 12일(수) 오후 2:00, 21일(금)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1일(화) 오후 7:30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36강 연말특집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전곡 해설 & 감상 정겨운 감성과 따뜻한 톤을 지닌 바리톤 토마스 올리만스의 '겨울나그네' 공연실황 영상에 독일어와 한글로 가사를 동시에 입혀 가사 내용에 대한 이해와 독일



어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뉘앙스를 체할 수 있는 해설 감상회.

12일(수) 오후 2:00 크리스마스 특집 '발레가 있는 무대'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 강사/노영재(무용평론가)

21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11강 연말특집 토크쇼 '사람과 여행'



이탈리아 현지 미술관에서 10년간 작품 해설을 맡아 오다 지난 2016년 귀국, 아트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과 지난 8년간 스페인 가이드로 활약했던 이현준이 함께하는 특집 토크쇼로, 오랜 시간 수많은 여행자들을 만나며 느끼고 경험했던 여행의 알짜 정보를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브람스의 회상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25일 강좌 없음)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음악&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4일(681회) 브람스 교향곡 제1번 & 2번
11일(682회) 브람스 교향곡 제3번 & 4번
18일(683회) 이 달의 책읽기 / 브람스 평전 II
(이성일 저, 풍월당)

전시 | Display

소울아트스페이스 개관 13주년 기념전 ‘최영욱’

일 시 10월 25일(목)-2019년 1월 8일(화)
소울아트 스페이스 해운대 전관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지난 2005년 개관 후 걸출한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가능성 있는 국내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며 참신한 기획전시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갤러리로 자리매김 해온 소울아트스페이스가 개관 13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전 ‘최영욱展’.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을 재현해낼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삶에 대한 본질을 탐구해온 ‘달항아리 작가’ 최영욱의 신작 20여점을 소개한다.

● **관람시간/평일 오전 10:30~오후 7:00, 토요일 오전 11:00~오후 5:00(매주 일, 월요일 휴관)**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3개월 12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에서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감동이 있는 클래식음악 영상감상회. 해외의 최신 클래식음악 연주실황을 고화질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코랄 판타지’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앙드레 류& 앙드레아 보첼리 ‘크리스마스콘서트’

현대조각작가 초대전

일 시 11월 13일(화)-12월 9일(일) 갤러리 오로라
문의 갤러리 오로라 055-374-3500

‘너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게’展

일 시 11월 28일(수)-12월 31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가족, 육아를 테마로 한 ‘썬비의 그림일기’로 엄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썬비 작품전 ‘너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게’展. 40점 이상의 원화와 웹툰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라이브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134회 알바트로스 詩낭송회 송년 주제 시낭송콘서트

일 시 12월 29일 토요일 오후 3:00
서면 신세계안과 5층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알바트로스시낭송문화협회 010-6367-0149

제1회 부산 국제 뮤지컬 콩쿨

일 시 12월 29일 토요일 오전 11:00 가람아트홀
문의 부산뮤지컬단 070-4131-3000

부산의 신진 예술가 발굴을 위해 부산뮤지컬단 주최로 열리는 제1회 부산 국제 뮤지컬 콩쿨.

- 참가대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개인 및 단체)
- 신청기간/11월 15일(목)~12월 18일(화)
- 신청방법/부산뮤지컬단 블로그(blog.naver.com/bsmusicalgroup)에서 참가신청서 다운
▶ e-mail(bsmusicalgroup@naver.com) 신청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18

일 시 10월 26일(금)-2019년 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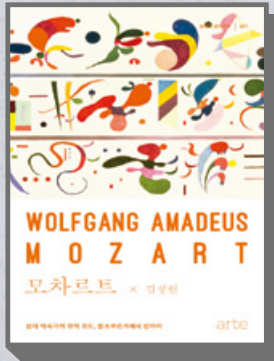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2018 ‘아름다운 만남’전

일 시 12월 5일(수)-12월 12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타워아트갤러리 송년기획전 한국화, 서양화 작품전

일 시 12월 13일(목)-12월 31일(월)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모차르트

김성현 지음 / 아르테
336p / 1만8천원

‘모든 재능을 타고난 천재’, ‘신이 내려준 기적’, ‘작곡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모차르트의 이름 앞에 붙여진 최고의 찬사들이다. 그가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던 18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영광과 함께 해왔다. 죽음의 미스터리가 더해지며 모차르트는 거의 신격화되어 왔다. 천재가 탄생하면 대중은 열광하기 마련이다. 그 이면은 관심사에서 벗어나기 쉬운 것이다. 어릴 적부터 재능을 꽃피웠던 모차르트의 삶은 오로지 찬사만 받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잘츠부르크의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 빈의 프리랜서 음악가로 거둔다기까지 모차르트가 걸어간 길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짧은 35년 인생은 눈부신 성공과 쓰라린 좌절, 영광과 고통이 함께 했다.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쉽게 전해 온 김성현 조선일보 기자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민낯의 모차르트를 소개한다. 저자는 탄생지 잘츠부르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빈은 물론 뮌헨과 만하임, 아우크스부르크, 런던과 파리, 밀라노, 프라하에 이르기까지 전 유럽에 걸친 모차르트의 행적을 낱알이 뒤쫓았다. 모차르트 내면의 인간적 고뇌, 작곡가로서의 성장 과정을 되짚어 보는 책이다.



영화 열정

리차드 라우드 지음, 임재철 옮김 / 산지니
317p / 2만2천원

1920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값싼 일회성 오락의 형태로 생각하고 있었다. 영화산업 종사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예술의 한 형태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 청년 앙리 랑글루아였다. 1935년 무성영화가 사라지던 시절 앙리 랑글루아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무성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의 서클’을 만든다. 이후 ‘영화의 서클’은 세계 각국의 영화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로 재탄생한다. 나치 독일의 위협 속에서도 2만 편이 넘는 영화를 지킨 앙리 랑글루아는 1948년 본격적으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를 운영한다. 그곳은 수많은 예술인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영화를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 영화관에서 자란 시네마테크의 아이들은 이후 세계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누벨바그의 감독들이 되었다. 시네마테크는 장 뤽 고다르, 프랑수아 트뤼포, 에릭 로메르 등 세계적인 영화감독이 자신의 영화적 세계관을 키워나간 곳이자 세계 영화사를 다시금 쓴 곳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사랑했던 괴짜 앙리 랑글루아의 삶을 담아낸 책이다.



동물 미술관

우석영 지음 / 궁리
224p / 2만2천원

동물을 그린 그림들을 다룬 책이 나왔다. 인문학자 우석영 씨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동물화 미술작품을 통해 인간과 동물, 자연의 공존 문제를 들려주는 책이다. 전작 <철학이 있는 도시>가 통상적인 의미의 미술산문집이라면, 이 책은 에세이를 더한 동물화집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러 동물화 가운데 저자가 선별한 작품들을 수록했다. 동양화에는 초충도, 화조도가 있다. 서양화에도 동물을 소재로 한 그림이 많다. 저자는 동물그림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동물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그 중 일부의 동물그림을 선정해 이 책에 수록했다. 그 그림들은 ‘집 동물’, ‘곤충류’, ‘영장류’, ‘지능의 존재’ 4개의 주제로 분류됐다. 동물을 그린 명화와 함께 실린 저자의 에세이는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하며, 어떻게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그림과 글에서 우러난다. 고대와 현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130여 장의 미술작품 읽기를 통해 동물에 대해 더 알 수 있고 또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다.

부산문화회관 소식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독일 함부르크·베를린 순회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사)독일 함부르크 독·한협회, 주 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독일 함부르크와 베를린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우선 매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한국축제-신비한 한국’에 참가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2월 15일과 16일, 함부르크 박물관과 함부르크 음악대학 공연장에서 두차례 공연을 갖고 문화교류를 통한 양국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단소·양금병주 ‘수롱음’을 비롯해 영남대풍류, 가야금거문고 중주 ‘출강’, 구름시나위, 설장구 제주, 아리랑연곡과 한국을 대표하는 부채춤으로 독일 현지인 및 교포들에게 우리 전통국악의 멋과 신명을 알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2월 19일에는 베를린 필하모니 캄머홀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 박영희 작곡상’ 수상연주회 무대에 선다. ‘국제 박영희 작곡상’은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을 넘어 유럽에서 명성을 인정받는 한국인 작곡가 박영희의 이름을 딴 작곡상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날 무대에서 1부 수상작 연주회에 이어 2부에서는 전통 및 창작국악 연주로 우리음악을 알리고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 부산시립무용단 한국의 명무 특강 워크숍 개최

부산시립무용단에서는 체계적인 강습을 통해 단원들의 기량향상과 전통춤의 공연 레퍼토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 있는 명무 권명화 선생을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12월 10일부터 나흘간 부산시립무용단 연습실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남지역의 투박한 질박미와 입춤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여성미가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풍기는 권명화 선생의 ‘소고춤’ 강습이 펼쳐진다.

한편, 부산시립무용단은 앞서 11월 26일부터 나흘간은 중국연변대학 예술대학원 학과장, 연변무용가협회 부주석으로 있는 김영화 안무가를 초청, 우리나라 최초로 서구식 현대무용을 창작하고 공연한 최승희의 기본춤 및 작품 레퍼토리를 배워보는 강습을 가진 바 있다.



◆ 부산국악예술회. (주)골든데이 정기회원 단체가입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가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품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며 단체가입이 늘고 있다.

국악을 사랑하는 예술인 및 시민으로 구성된 부산국악예술회가 새롭게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한데 이어 (주)골든데이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정기

회원으로 단체가입했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지난해 정기회원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기존 회원제도보다 더 많은 할인매수와 초대권 증정 등 회원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단체가입이 계속 늘고 있다. 현재 부산국악예술회, (주)골든데이 외에도 부산문화회관 인근에 위치한 석포교회가 지난 2008년부터 계속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해오고 있으며, 이밖에 그랜드자연요양병원, 동성고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등이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1



3



2



4



5

◆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 제36차 연례총회 성료

제36차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Federation for Asian Cultural Promotion/FACP) 총회가 (재)부산문화회관 주최, (사)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었다.

1 FACP 환영만찬 2 개막 선언하는 (재)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
3-4-5 환영만찬 축하공연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은 아시아 지역 내의 문화 교류 활성화 및 아시아 문화 확산을 위해 1981년 설립된 이래로 매년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산업 종사자 및 교육자, 예술가 등이 한데 모여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연례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예술산업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2개의 주제강연과 5개의 주제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에서 약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하였다. 주제강연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을 맡은 송승환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과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스쿨의 대표인 앨런 플레처를 초청,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담긴 스토리텔링과 이를 위해 사용된 과학기술, 그리고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스쿨의 운영전략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5개의 주제토론은 그간 소개되지 않았던 아시아지역의 공연장을 살펴보는 <아시아의 숨은 공연장: 몽골, 베트남, 인도>, 한·중·일 3국의 문화산업을 비교하는 <한·중·일 문화예술산업의 현황과 과제: 하얼빈, 가나자와, 부산>, 국내외 음악축제의 운영현황과 미래 전략을 살펴본 <음악축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4차 산업혁명 명이 문화예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



6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스쿨 대표 앨런 플래처
 7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플로리안 리임 8 라 살레 댄스 컴퍼니(필리핀)
 9 조재혁 x 이은결 IMAGES 10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 송승환
 11 FACP 참가자 단체사진 12 F1963에서 열린 환승만찬



산업의 기회 혹은 위기>, 효과적인 자본유치 사례 및 방안을 제시한 <문화예술의 자금 조달 및 후원 유치에 관한 노력>을 주제로 각국의 문화 예술 전문가, 교수, 예술가 등을 초청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아시아지역의 신진예술가를 소개하는 AGA(Asian Gems in the Arts) 쇼케이스에는 한국의 거문고양상블 '사계', 일본의 트롬본듀오 코지로 후지하라(트롬본), 교코 하라다(피아노), 필리핀의 전통춤과 힙합, 발레 등을 융합한 필리핀을 대표하는 댄스그룹 '라 살레 댄스 컴퍼니', 그리고 몽골창작오페라의 일부를 처음으로 선보인 몽골오페라단이 함께하여 각국의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11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조재혁x이은결 IMAGES'를 함께 관람하여 최근 국내 공연계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장르간 협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부산의 대표적인 재생문화공간인 F1963에서 진행된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하는 음악회및 리셉션, 시티투어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산의 문화를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New Year's Concert 2019
신년음악회

1월 18일 FRI 19:30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바이올린 신지아 Zia Hyunsu Shin, Violin

제547회

마스카니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P. Mascagni | Intermezzo from "Cavalleria Rusticana"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P. I.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푸치니 | 교향적 기상곡
 G. Puccini | Capriccio Sinfonico
 차이콥스키 | 이탈리아 기상곡
 P. I. Tchaikovsky | Capriccio Italien

부산시향은 2019년을 이탈리아와 러시아의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5년 전 500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했던 매력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차이콥스키의 마스터피스를 가지고 부산을 다시 찾아오고, 부산시향은 같은 작곡가의 호쾌한 관현악 '이탈리아 기상곡'으로 파날레를 장식합니다. 이 사이에 두 개의 이탈리아 곡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마스카니의 유명한 간주곡과 더불어 푸치니의 '교향적 기상곡'을 어려분께 선보입니다. 푸치니가 오페라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 시기에 작곡한 작품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오페라 '라 보엠'의 모티프를 비롯한 아름다운 멜로디들로 가득한 숨겨진 보물입니다.

The Richard Strauss Cycle VIII - Complete Tone Poems 2017-2019



The Alps!
등정

4월 16일 TUE 19:30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스토리텔러 김석훈 Suk Hoon Kim, Storyteller

제550회

알프스 교향곡에 관한 좌담
 Talks about Eine Alpensinfonie
 슈트라우스 | 알프스 교향곡
 R. Strauss | Eine Alpensinfonie

부산시향이 여덟 번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등정합니다. 슈트라우스는 알프스 교향곡에 교향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이를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스물두 개의 장면에 담아낸, 그의 교향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곡이기도 합니다. 대작을 감상하시기 전에는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은 배우 김석훈이 최수열 지휘자와 함께 알프스 교향곡을 주제로 좌담을 갖게 됩니다. 이미 많은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이기에,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Bruckner's 7th Symphony
부산시향의 브루크너

2월 15일 FRI 19:30

지휘 정치용 Chi-yong Chung, Conductor

제548회

브루크너 | 교향곡 제7번
 A. Bruckner | Symphony No.7

차근차근 하나씩 벽들을 쌓아 올려 결론에 도달하는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부산에서 오랜만에 감상할 기회입니다. 평생을 오르간 주자로 살았고 마치 수도자처럼 작곡을 신성한 의식으로 삼았던 브루크너가 쓴 교향곡들 중, 청중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있으며 작곡가가 본격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된 7번 교향곡을 부산시향이 연주합니다.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해석의 소유자 정치용 코리안심포니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Human Voice
목소리

5월 17일 FRI 19:30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비올라 김상진 Sang Jin Kim, Viola
 바이올린 임흥균 Hong-Kyun Lim, Violin
 여창가객 박민희 Minhee Park, Gagok

제551회

모차르트 | 신노니아 콘체르탄테
 W.A. Mozart | Sinfonia Concertante
 차이콥스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P. I. Tchaikovsky | Variations on a Rocooco Theme
 윤이상 |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
 Isang Yun | Engel in Flammen mit Epilog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깊은 뜻을 가졌다는 중저음의 현악기 비올라.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상진을 초청하여, 원곡에서는 첼로로 연주되는 로코코 변주곡을 비올라의 음색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신노니아 콘체르탄테는 김상진과 함께 부산시향의 임흥균 악장이 독주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의 메인으로는 2001년 부산시향이 국내 초연한 윤이상의 유작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키, 키리안 등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인정했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경남 출신으로 해방 이후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음악인입니다. 특별히 에필로그의 스프라노 솔로는 국악계에 서 실험적인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여창가객 박민희에게 맡깁니다. 그녀의 미묘한 목소리로 새롭게 태어난 윤이상의 마지막 작품을 기대해 주십시오.



Classical Greeting for Spring
클래식한, 봄맞이

3월 7일 THU 19:30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손열음 Yeol Eum Son, Piano

제549회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봄의 소리" 왈츠
 J. Strauss II | "Frühlingsstimmen" Waltz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3
 라벨 | 라 발스
 M. Ravel | La Valse
 모차르트 | 교향곡 제31번 "파리"
 W.A. Mozart | Symphony No.31 "Paris"

클래식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바쁘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 등 고전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은 분명 좋은 힐링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차르트가 파리에서 작곡한 3악장 구성의 교향곡과 더불어, 세계에서 인정받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협연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을 놓치지 마십시오. 공연의 전반부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로 열고, 후반부의 시작은 빈 왈츠를 모티브로 파리재임이 쓴 '라 발스'를 배치했습니다. 부산시향이 연주하는 두 곡의 왈츠 그리고 고전시대 작품들과 함께 '클래식한' 봄맞이 하시는 건 어떨까요?



Dedication
헌정

6월 14일 FRI 19:30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바이올린 김보소리 Bomsori Kim, Violin

제552회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J. Sibelius | Violin Concerto
 말러 | 교향곡 제5번 중 아다지에도
 G. Mahler | Symphony No.5, Adagio
 라벨 | 쿠프랭의 무덤
 M. Ravel | Le Tombeau de Couperin

누군가에게 바치는 일을 헌정이라 하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작곡가들은 작품을 쓴 후, 헌정의 대상을 지정하곤 합니다. 시벨리우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보통 초연대의 연주자에게 헌정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네 번째 연주자였던 헝가리의 어린 비루투오에게 헌정했습니다. 이 협주곡은 세계로 명성을 뽐내나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보소리가 연주합니다. 7년 전에 부산시향과 중국투어 때 함께 했던 협연자이기도 합니다. 말러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알마에게 로망틱한 아다지에도를 바쳤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라벨은 '쿠프랭의 무덤'을 작곡한 후, 이 작품이 자신도 참전했던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희생당한 친구들을 추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헌정의 사연을 가진 세 곡을 만나보시죠.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ymphonic Season 2019

The Richard Strauss Cycle X - Complete Tone Poems 2017-2019



제556회

The Last Cycle 아름. 열. 열하나.

11월 22일 FRI 19:30

지휘 최수열 Seo-yeoul Choi, Conductor
오르간 신동일 Dong-ill Shin, Organ

생상스 | 교향곡 제3번 "오르간" 중 피날레
C. Saint-Saëns | Symphony No.3 "Organ", Finale
힐보리 | 열한 개의 문
A. Hillborg | Eleven Gates
슈트라우스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R. Strauss | Also sprach Zarathustra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서거 70주년인 2019년에 부산시향과 최수열 지휘자는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 사이클을 연주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연주함으로써 부산시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니체의 실존주의 철학을 아홉 개의 섹션으로 표현한 슈트라우스의 걸작으로 이미 최감독이 부임 전에 2016년에 부산시향과 연주했던 교향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연주회에는 부산 출신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인 신동일 연세대 교수가 어린 시절에는 피아노로 협연했던 고향의 악단에 초대됩니다. 생상스의 오르간 교향곡의 피날레를 부산시향과 연주하여 열 번째 사이클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그의 오르간 사운드는 슈트라우스의 작품에도 등장하여 결정적인 순간을 인도할 겁니다. 공연의 전반부에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현대작곡가 인데르스 힐보리의 2005년 작 '열한 개의 문'도 선보입니다. 열한 개의 캠퍼를 통해 다양한 음향을 선보이는 이 곡을 통해 난해하다고만 여겨질 수도 있는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Welcome, New Associate Conductor! 부지휘자의 첫 번째 음악회

7월 5일 FRI 19:30

지휘 신임 부지휘자 New Associate Conductor
정기연주회 협연 오디션 합격자 Winner of BPO's Audition

피아노 협주곡 추후 발표
Piano Concerto TBA
교향곡 추후 발표
Symphony TBA

2019년 상반기 안에는 부산시향 단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부지휘자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7월의 정기연주회는 신임 부지휘자가 이끄는 첫 번째 음악회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 무대에서는 오디션을 통해서 최종 합격된 부산 출신의 협연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향은 2018년에 최초로 모든 단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목관 협연자를 선정했고, 그 합격자를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같은 방식을 통해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The Richard Strauss Cycle IX - Complete Tone Poems 2017-2019



제554회

French Horn 프렌치 호른

9월 27일 FRI 19:30

지휘 최수열 Seo-yeoul Choi, Conductor
호른 김홍박 Hongpark Kim, Horn

베를리오즈 | 로마의 사육제
H. Berlioz | Le Carnaval Romain
슈트라우스 | 호른 협주곡 제1번
R. Strauss | Horn Concerto No.1
베를리오즈 | 리어왕 서곡
H. Berlioz | Le roi Lear Overture
슈트라우스 | 돈 후안
R. Strauss | Don Juan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의 아홉 번째 사이클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교향시 '돈 후안'을 무대에 올립니다. 원형 왕립 오페라의 호른 수석주자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슈트라우스는 주옥같은 두 개의 호른 협주곡을 남기기도 했죠. 그 중 1번 협주곡을 오슬로 필하모닉의 수석 호른리스트 김홍박이 협연합니다. '프렌치 호른'의 사운드와 더불어 프랑스 관현악곡도 감상하면 어떨까요?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익숙한 곡 하나와 생소한 곡 하나를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555회

Gentleman in Busan 부산 신사

10월 25일 FRI 19:30

지휘 최수열 Seo-yeoul Choi, Conductor
첼로 김두민 Doo-Min Kim, Cello

엘가 | 첼로 협주곡
E. Elgar | Cello Concerto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J. Brahms | Symphony No.1

가을 신사 브람스의 음악을 듣고 싶은 계절입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신중하게 작곡하기로 유명했던 브람스가 20여년을 공들여서 만든 첫 번째 교향곡을 부산시향이 연주합니다. 가을에 흥취 취하기 바랍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 그리고 영국의 국민작곡가 엘가. 첼로 협주곡은 그의 생전 마지막 작품으로, 4악장의 구조를 가진 대작입니다. 이 명곡을 현재 뒤셀도르프 심포니의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두민의 연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은 독일에서 부산으로 첼로를 들고 온 이 신사로부터 음악의 감동 이상의 무언가를 얻고 가실 겁니다.



제557회

Beethoven's 9th Symphony 송년음악회

12월 19일 THU & 20일 FRI 19:30

지휘 최수열 Seo-yeoul Choi, Conductor
소프라노 서선영 Sunyoung Seo, Soprano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Songmi Yang, Mezzo Soprano
테너 박성규 Sung Kyu Park, Tenor
베이스 장세종 Sejong Chang, Bass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 한국 가곡 Four Korean Songs
김남조 시 김순애 곡 | 그대 있음에 (19일, 서선영)
이수인 시, 곡 | 내 맘의 강을 (19일, 박성규)
이은상 시 김동진 곡 | 가고파 (20일, 양송미)
김호근 시, 곡 | 눈 (20일, 장세종)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세계 3대 공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공쿠르의 생악부분 우성진 소프라노 서선영과 강성대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최고의 유력 무대를 누리고 있는 테너 박성규와 더불어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인 베이스 장세종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의 협연자로 무대에 오릅니다. 합창 교향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네 명의 생악가가 각자 한 곡씩 준비한 아름다운 우리말로 쓰여진 한국가곡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송년음악회의 함께 2019년의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문의 051-607-3111-3 (부산시향), 607-6074-5 (정기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제557회 (송년음악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할인 50%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임신부

20% 정기회원, 학생(24세이하),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 단체(3,000원권) ▶전화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통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철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명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이정일 정영희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영희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총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 2018년 11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문화예술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 전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정용환 이사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로 있는 정용환 후원회 이사는 평소 CEO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주 공연장을 찾아 문화생활을 즐긴다.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이사가 되고나서부터는 공연장 발걸음이 더욱 잦아졌는데 그는 바쁜 해외 출장 일정 속에서도 공연, 전시 관람만큼은 빼놓지 않는다. 특히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생활비 지원은 유명하다. 평소에도 직원들과 함께 미술관 관람을 하거나 공연티켓을 자주 선물하곤 한다는 정용환 이사는 처음 만나는 무대가 낯설고 지루하더라도 자주 접해야 예술과 친숙해질 수 있다며, 예술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제 첫 돌을 맞은 후원회는 그 출발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용환 이사. 시작이 곧 반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여유를 갖고 후원회 기틀의 초석을 다질 때라고 이야기한다. 정용환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는 국내 최고의 친환경 공기조화기 전문업체로, 탁월한 제품과 뛰어난 AS로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국을 단숨에 뛰어넘는 열교환식 공조기 제조국가로 발돋움하게 한 주인공이다. 국내 공조, 환기 분야의 개척자라 불리는 정용환 이사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제32회 부산산업대상 기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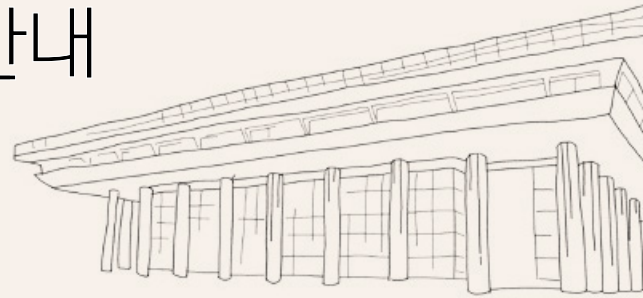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윤영기(010-7361-7273)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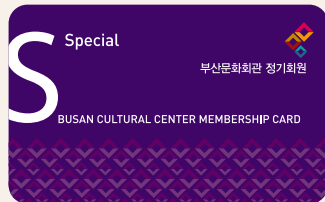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MEMBER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같은 밤 콘서트 [종료]

9월 20일(토)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가수 노사연, 이무송 부부와 바다새가 함께하는 부산시민을 위한 특별한 무대.

국립무용단 '묵향' [종료]

10월 6일(토) 오후 3: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회당 선착순 30매)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낸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묵향' 부산무대.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종료]

10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하는 무대.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종료]

10월 31일(수), 11월 28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4.
• 지휘 : 김봉미 • 해설 : 조윤범

조재혁 x 이은결 IMAGES [종료]

11월 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1인 2매, R석 선착순 60매)

'대한민국의 클래식 통역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특별한 만남.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4. 태(態) **예약중**

12월 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8년 마지막 무대.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종료]

12월 24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선착순 100매)

러시아 클래식 발레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러시아 최고의 무용수로 구성된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2018 제야음악회 [종료]

12월 31일(월)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80매)

2018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9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8년 제야음악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온 가족을 위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

— 러시아인 클래식 발레단 —

Russian Classical Ballet
by Evgeniya Beshpalova

호두까기인형

THE NUTCRACKER



2018. 12.24(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2018 부산시민회관 1천원의 행복 송년음악회

❄️ **일시** : 2018년 **12월 28일**(금) 19시 30분

❄️ **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문의 / 예매** : 부산시민회관 051-630-5200



정동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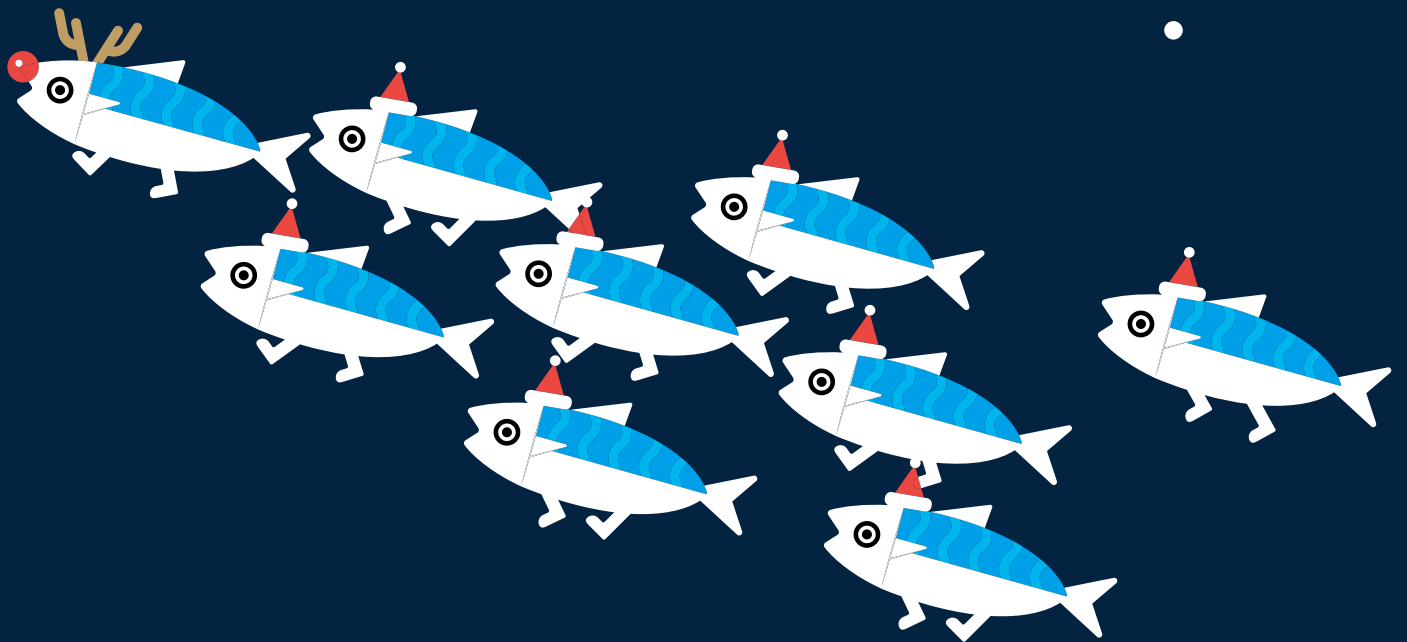
팝페라 휴



4nowquartet(패즈)

MERRY CHRISTMAS







우리아이 첫번째 체험은 ?

국민체험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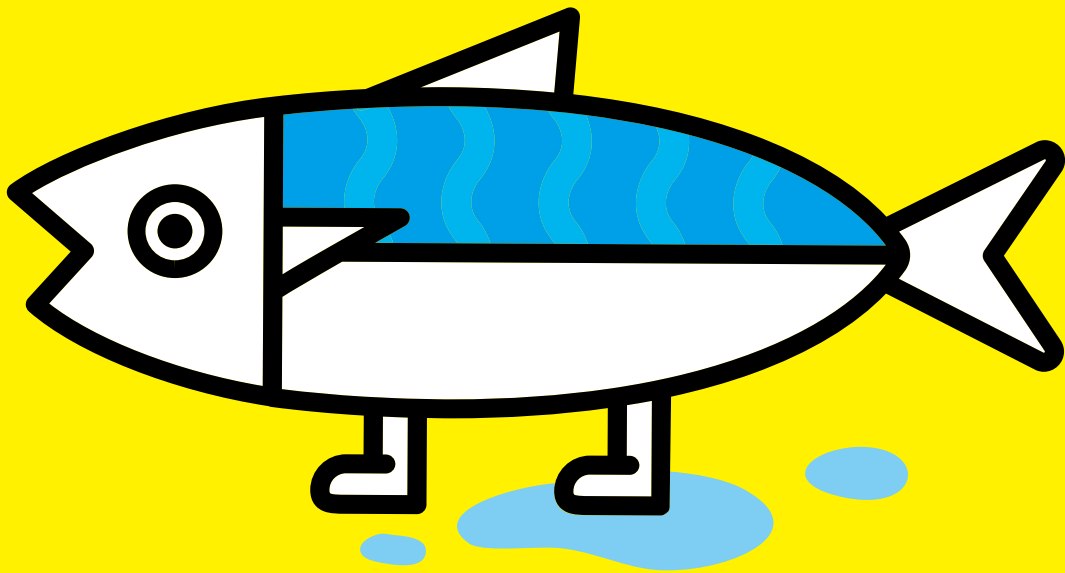
2018년 12월 24일(월) ~ 2019년 3월 3일(일)

발 달 리

꼬드어

GGO
DEUNG O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FACEBOOK



INSTAGRAM

(주)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65번길 90 평광우리가 1층 TEL. 051. 636. 1216



Happy
New Year
2018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NEW YEAR'S EVE CONCERT



2018. 12. 31 (월) 10:30 P.M.

지휘 최수열 피아노 조재혁 바이올린 김재원 뮤지컬가수 양준모 사회 손지현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 MBC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 (ARS 1번)